

농어촌 문화향유 현황과 개선 과제

박 주 영 연구 위원
신 학 승 위 축 연구 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문화향유 현황과 개선 과제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심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 주 영 연구위원

요 약

- 본 연구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3차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농어촌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향후 연차별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목적은 첫째, 농어촌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및 진단, 둘째,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정책의 추진내용 검토, 셋째,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임.
- 농어촌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및 진단,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문화향유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도시 주민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역의 단위면적당 문화시설의 개수가 도시에 비해 훨씬 낮음.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향유시설의 접근이 어렵다고 체감하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임.
 - 즉, 농어촌 주민의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need)는 있으나 접근성 등 기회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 지원 정책 가운데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필요가 나타남. 또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향유 정책 추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발현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4가지 개선과제를 도출함.
- **첫째, 기존시설을 복합시설화 하고 지역(거점-마을간) 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함.**
 - 기존의 민간·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다기능 복합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함.
 - 거점지역과 마을간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설운영 및 전문 인력 및 컨설팅을 지원함.
- **둘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함.**
 - 농어촌 주민(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대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셋째, 문화정보 확산 및 관련 매개인력을 지원함.**
 -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으로 농어업 소식 정보채널 및 오프라인 방식(입소문, 전단지, 우편물)을 활용함.
 - 귀촌자, 예술인 등의 매개인력을 육성하거나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넷째, 정책 협력체계를 마련함.**
 - 문화향유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입체적 지원 등 타 부문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개발함.
 - 지역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향유 시책을 시행함.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개념 정의 13

제2장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 1.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 18
- 2.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41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61

제3장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정책

- 1.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유형과 내용 75
- 2.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추진체계 130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37

제4장 농어촌 문화향유 개선과제

- 1. 기본방향 139
- 2. 개선과제 142
- 3. 요약 및 제언 162

참고문헌 165

부록 -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169

표 차례

제2장

표 2- 1.	주된 문화향유활동	19
표 2- 2.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1순위(복수응답) ..	20
표 2- 3.	희망하는 문화향유활동	20
표 2- 4.	문화향유 참여횟수 및 희망 참여횟수	21
표 2- 5.	성별 문화향유 참여횟수 및 희망 참여횟수	22
표 2- 6.	평일/휴일별 문화향유활동(복수응답)	23
표 2- 7.	주된 문화향유활동 장소	23
표 2- 8.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	24
표 2- 9.	희망하는 문화향유시설	25
표 2-10.	가장 만족스러운 문화향유활동 유형-1순위	26
표 2-11.	문화향유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	26
표 2-12.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 및 직접 관람횟수	27
표 2-13.	프로그램별 직접 관람률	28
표 2-14.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의향률	28
표 2-15.	관람 선택 기준-관람의향이 있는 경우	29
표 2-16.	직접 관람 애로사항	30
표 2-17.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지역 및 관람방법-관람횟수 1회 이상인 경우	30
표 2-18.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프로그램별 참여율(복수응답)	31
표 2-19.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비율 (복수응답)	32

표 2-20.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시 애로사항	32
표 2-21.	여행횟수	33
표 2-22.	여행의향	34
표 2-23.	여행참여의 어려움	34
표 2-24.	역사문화 유적지의 방문경험 및 방문의향	35
표 2-25.	역사유적지 편의시설 만족도	35
표 2-26.	축제 방문현황 및 방문의향	36
표 2-27.	축제 시설 만족도	36
표 2-28.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 횟수	37
표 2-29.	주된 스포츠 참여활동	38
표 2-30.	향후 참여희망 스포츠 종목	38
표 2-31.	스포츠 참여활동 효과	39
표 2-32.	스포츠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	39
표 2-33.	스포츠 참여활동 비 참여 이유	40
표 2-34.	스포츠 관람활동 경험 및 의향	40
표 2-35.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의 어려움	41
표 2-36.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 현황	43
표 2-37.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분포현황	43
표 2-38.	미술관 및 문예회관 분포현황	44
표 2-39.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분포현황	45
표 2-40.	전체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45
표 2-41.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 현황	46
표 2-42.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분포현황	47
표 2-43.	야구장 및 테니스장 분포현황	48
표 2-44.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분포현황	48
표 2-45.	수영장 및 국궁장 분포현황	49

표 2-46.	전국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	50
표 2-47.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51
표 2-48.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51
표 2-49.	성별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52
표 2-50.	문화향유시설 이동수단 및 평균소요시간	52
표 2-51.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시설 이동 평균소요시간	53
표 2-52.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인식	53
표 2-53.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인식	54
표 2-54.	문화향유시설 이용 평균비용(1회 이용기준)	54
표 2-55.	문화향유시설 수 인식도	55
표 2-56.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	56
표 2-57.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	56
표 2-58.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 및 경험유무	57
표 2-59.	성별과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	58
표 2-60.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	58
표 2-61.	성별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	59
표 2-62.	주로 참여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59
표 2-63.	문화향유 프로그램 만족도	60
표 2-64.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 어려움	60

제3장

표 3- 1.	농어촌 문화향유 진흥 정책	78
표 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	80
표 3- 3.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2014-2015)	81

표 3- 4.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사업	83
표 3- 5.	작은 도서관 수	84
표 3- 6.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85
표 3- 7.	작은 영화관 사업	89
표 3-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	91
표 3- 9.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2014-2015)	92
표 3-10.	문화누리카드사업	94
표 3-11.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현황	95
표 3-12.	문화가 있는 날	96
표 3-13.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지원현황	98
표 3-14.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	99
표 3-15.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101
표 3-16.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지원현황	103
표 3-17.	신나는 예술여행	104
표 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	105
표 3-19.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2014-2015)	106
표 3-20.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108
표 3-21.	문화이모작	110
표 3-22.	예술 꽃 씨앗학교	113
표 3-2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116
표 3-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 사업	117

표 3-25.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 사업	118
표 3-2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20
표 3-2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123
표 3-28.	문화마을 조성사업	128
표 3-29.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12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수행 흐름	10
그림	1-	2.	연구 추진 경위	12

제2장

그림	2-	1.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	61
그림	2-	2.	문화향유활동 참여비중 및 희망비중	62
그림	2-	3.	문화향유활동 참여횟수	63
그림	2-	4.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 및 관람횟수	64
그림	2-	5.	스포츠 참여 및 관람활동 경험현황	66
그림	2-	6.	단위면적 100km ² 당 문화시설 수	68
그림	2-	7.	문화향유시설 이용률	69
그림	2-	8.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체감도	69
그림	2-	9.	문화향유시설 수 인식도	70
그림	2-	10.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인식도	71

제3장

그림	3-	1.	공공체육시설	83
그림	3-	2.	문화누리카드	94
그림	3-	3.	문화가 있는 날	97

그림 3- 4.	찾아가는 문화시설	102
그림 3- 5.	신나는 예술여행	104
그림 3- 6.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108
그림 3- 7.	예술 꽃 씨앗학교	113
그림 3- 8.	예술꽃 씨앗학교(창호초등학교)	115
그림 3- 9.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119
그림 3-10.	생활문화센터	120
그림 3-11.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123
그림 3-12.	문화마을 활동사례	128
그림 3-13.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130
그림 3-14.	문화향유 정책 추진체계	131

제4장

그림 4- 1.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기본방향	141
그림 4- 2.	농어촌 거점 문화향유시설 네트워크	145
그림 4- 3.	복합문화시설 ‘다락원’	147
그림 4- 4.	강릉시 도배마을 ‘우추리 응원단’	152
그림 4- 5.	구례군 ‘군민극단’	156
그림 4- 6.	농어촌 문화향유 거버넌스	160
그림 4- 7.	칠곡군 ‘보람할매연극단’	16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지자체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현재는 2014년에 수립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중임.
- 1차년도 기본계획(‘05~‘09), 2차년도 기본계획(‘10~‘14), 3차년도 기본계획(‘15~‘19)의 각 비전과 추진기반은 다음과 같음.

- 1차년도 기본계획의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임. 추진기반으로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복합 산업 활성화’임.
- 2차년도 기본계획의 비전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임. 추진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축’,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체계 정비’임.
- 3차년도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임. 추진기반으로 ‘범정부 연계·통합 정책추진 강화’,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임.
- 3차년도 기본계획의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임. 주요과제는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전통·향토 문화의 전승·활용’임.

■ 농어촌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 기간에는 기존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발생함.
 - 해마다 삶의 질 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정도 정책 과제 군에 대하여 전문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심층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분야별 전문성 부족을 한계로 지적함.
- 이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의 시행계획은 삶의 질 정책 전 부문에 대하여 국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차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문별 중요 정책 군에 대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함.

- 각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별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 네트워크를 구성함(공동업무협약 체결, '15.7.21.). 점검·평가 대상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전 분야로 확대함.
 - 또한 정책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삶의 질 부문별 중요 정책 군을 선정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함.
- 또한 도시민과의 삶의 질 비교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기반의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문화여가 부문의 심층연구가 필요함.

■ 1차년 연구로서 현황진단을 토대로 한 정책 방향 도출 필요

- 본 연구는 문화·여가 부문 심층연구의 1차년 연구이므로 농어촌의 문화향유 현황에 대한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향후 연차별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농어촌이 처한 문화향유 개선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의 목적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및 진단

-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 현황을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함.
- 특히 도시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 정책의 추진내용 검토

-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 정책의 추진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별 관련 정책을 정책 목적과 내용별로 구분 및 파악함.
- 정책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함.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 및 지원 정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이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 개념적 범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어촌 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¹에서 제시한 농어촌 지역(읍, 면)을 고려함.
 - 도농복합시²의 경우 도시(동)지역과 농촌(읍, 면)지역이 통합된 특성을 나타내지만 지역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즉 도농복합시를 농어촌 지역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농어촌의 실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출판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여가’의 관점을 더하여 ‘관광활동’과 ‘체육활동’을 광의의 문화향유활동으로 이해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향유활동은 ‘문화예술 참가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체육 참여활동’, ‘체육 관람활동’, ‘관광활동’임.

1 농어촌 지역은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나타냄.

2 도시(동) 지역과 농촌(읍, 면)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시를 의미함. 2015년 현재 56개의 도농복합시가 존재함.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은 농어촌 지리적 범주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앞서 제시한 활동을 향유하는 것을 나타냄.

■ 공간적 범위

- 전국 농어촌 지역

■ 대상적 범위

- 삶의 질 정책 중 문화·여가 부문

■ 시간적 범위

- 분석 기준 년도: 2014년(일부항목 2013년 기준)
- 과업 수행 기간: 2015년 9월 10일 ~ 12월 25일(3.5개월)

■ 내용적 범위

- 관련 개념 및 이론 검토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관련 개념 및 이론 검토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 문화향유 관련 통계 데이터, 행정 자료 등 자료 조사·분석
 -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조사, 주민 등 정책 수혜자 설문 조사
- 농어촌 지역 문화향유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농어촌 문화향유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정책성과 및 문제점 도출

- 사례분석 및 개선과제 제안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농어촌 문화향유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2.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문헌연구를 통해 농어촌 문화향유활동 및 각 활동의 개념을 제시함.
- 2차 자료 조사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수요 vs 공급측면), 문화향유 정책현황을 파악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활동조사(2014)’, ‘문화향유 실태조사(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 복지 실태(2014)’,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자료(2015)’ 등을 참고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문헌과 2차 자료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의 세부적인 문화향유 수요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REI 현지통신원’풀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함. KREI 현지통신원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임.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과 관련 정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상 농어촌 지역이나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우수정책의 성공요인이나 정책효과를 도출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파악함.

■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관계자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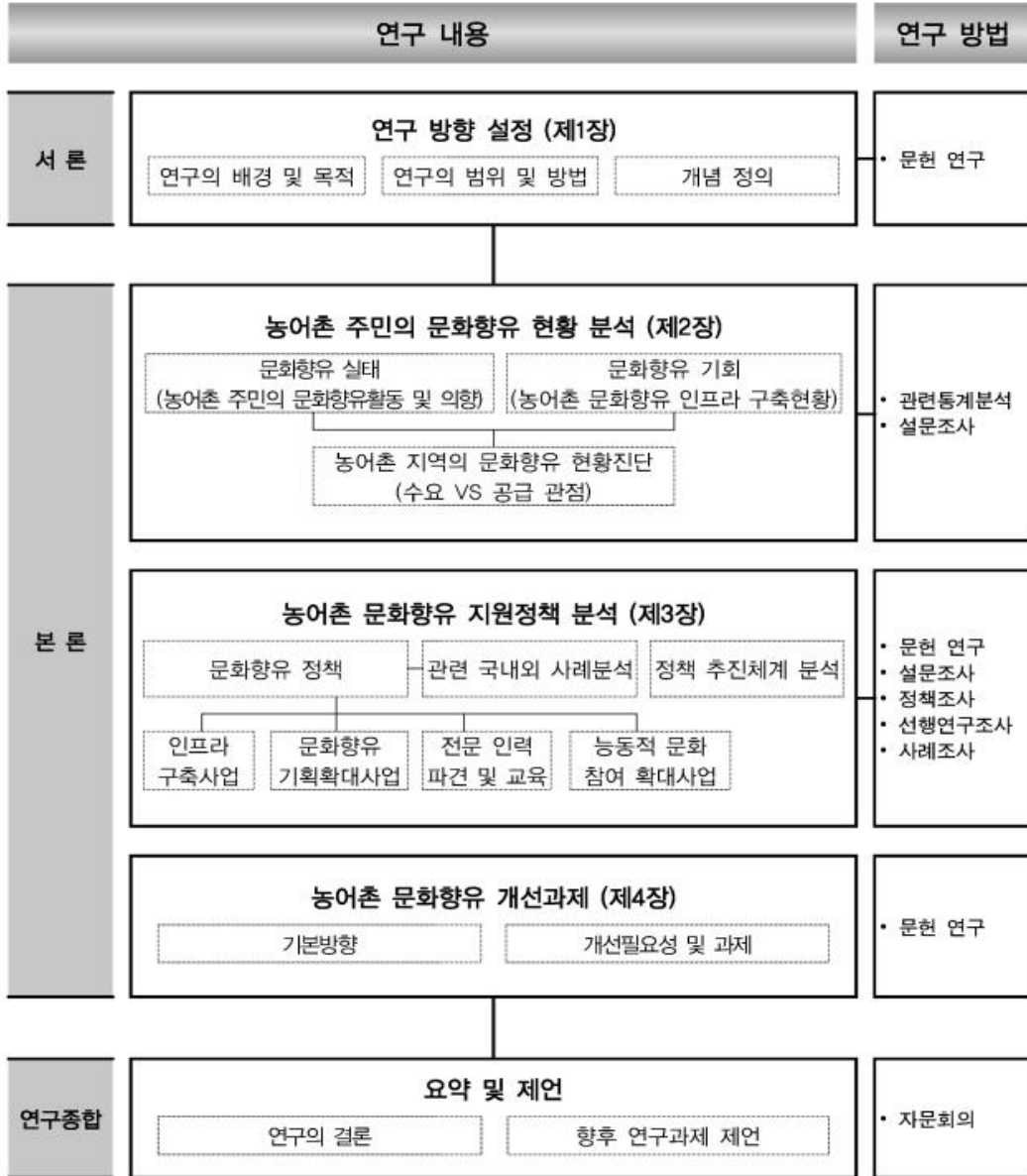
-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과 관련한 공무원 및 각 단체의 사업 관계자, 지역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정책과 해당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3. 연구 수행 체계

- 연구 수행 흐름은 [그림 1-1]과 같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함.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함. 또한 각 농어촌 문화향유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통해 본 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각 용어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법 및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을 참조하고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함.
- 제2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화향유활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 현황 실태(수요측면) 및 기회(공급측면)로 나누어서 분석함.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을 도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및 공급측면 문화향유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제3장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문화향유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분석함.
 - 주요 정책 사업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 대상, 근거 법, 지원방식, 주요성과, 주요계획,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각 정책 사업별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정책의 추진 체계를 분석·제시함.
- 제4장에서는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요약함.
 - 문화향유 정책의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각 분야별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제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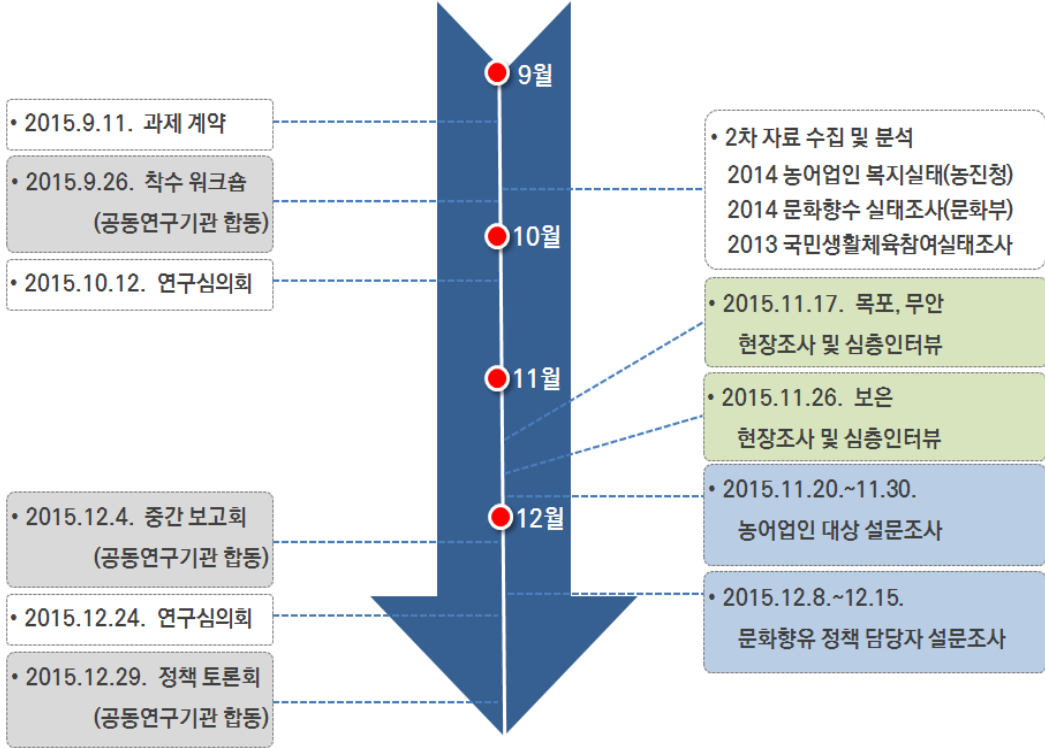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



2.4. 연구 추진 경위

- 연구의 주요 추진 경위는 [그림 1-2]와 같음.
 - 2015.9.11. 과제계약: 연구 목표 및 방향성을 설정함. 2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괄적 연구내용을 파악함.
 - 2015.9.26. 착수워크숍: 공동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합동 착수워크숍을 진행함.
 - 2015.10.12. 연구심의회: 제1차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과 연구틀을 논의함.
 - 2015.11.17. & 11.26.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 문화향유 지원 단체 및 마을답사(목포시, 무안군, 보은군 대상)를 실시함.
 - 2015.11.20.~ 30.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 현지통신원'풀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웹 설문, 우편 설문)를 실시함.
 - 2015.12.4. 중간보고회: 공동연구기관 합동 중간보고회를 진행함.
 - 2015.12.8.~ 15. 문화향유 정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문화향유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이메일)를 실시함.
 - 2015.12.24. 연구심의회: 제2차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최종결과 및 수정사항을 논의함.
 - 2015.12.29.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각 부문별 정책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그림 1-2. 연구 추진 경위



3. 개념 정의

3.1. 문화향유의 개념

■ 문화

- ‘문화’는 각 학문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미로 개념화하기 어려움.
 - 대표적으로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함.
 - 문화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문화는 3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생활양식문화³, 둘째,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⁴, 셋째, 상징체계로서의 문화⁵임(박태선, 2015).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는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 즉 여가의 일부로서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함. 또한 관광과 체육 등의 생활문화 속 여가활동을 포함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2조 ‘지역문화’의 정의⁶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3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관, 관습,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4 창의성을 토대로 구성된 전통문화유산, 예술, 문화콘텐츠 등을 의미함

5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임

는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문화향유활동으로 구분함.

- 또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에서 제시한 여가의 정의⁷를 바탕으로 관광활동과 체육활동을 문화향유형 여가활동으로 포함함.
- 아울러 직업적 노동 및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분전환 하는 것을 넘어 자기계발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김광득, 1994)이라는 관점을 견지함.

■ 문화향유활동

- ‘문화향유’란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누리어 가지는(enjoy) 것을 의미하며, 문화향유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은 ‘농어촌 지역사회 내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각 세부 활동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활동: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와 관련된 참여 및 관람활동
 - 관광활동: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화 활동

6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

7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콘텐츠(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국민관광, 생활체육활동을 포함함.

- 체육활동: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참여 및 관람활동

3.2. 문화 향유의 의의

■ 일상의 필수 요소로 인식

-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간의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게 됨.
- 따라서 문화·여가 환경은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소에서 나아가 삶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됨.
 -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여가 활동의 차이가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의 차이를 초래함. 특히 문화·여가 활동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대뿐 아니라 문화·여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음.
- 문화·여가 활동은 여유시간이 늘었다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저절로 증가하지 않으며, 소비할수록 더욱 소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
 - 즉, 문화·여가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화·여가활동이 부족한 악순환을 야기함.
 - 한편 문화·여가 관련 시설의 공급뿐 아니라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욕구 개발을 위하여 교육(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한 문화적 자본 증대를 도모해야 함.

■ 문화민주주의 관점으로 진화

- 유럽 주요국가의 문화 정책 기조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전환함.
- ‘문화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란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culture and cultural appreciation/participation)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이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하향적 방식(top down)에 의한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나타내며 문화 엘리트주의 성격을 나타냄(서순복, 2007).
 -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오페라, 연극, 발레, 오케스트라 등의 고급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고급예술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문화민주주의는 스스로 지역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고급예술보다는 아마추어 예술에 초점을 맞춘 상향적(bottom up)이고 자발적 방식을 나타내며 문화 수요자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함.
 -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선호와 취향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를 확장하는 데 주목함.
- 이에 따라 놓여준 지역의 문화향유 지원에 있어서도, 공급자 관점의 획일화된 정책시행을 지양하고 놓여준 주민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놓여준 및 놓여준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정책시행 및 자발적 문화형성 지원 등의 방식으로 구현 가능함.

제 2 장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수요측면)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인 복지 실태(농촌진흥청, 2014)」, 「국민여가 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를 분석함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공급측면)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4)」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행정자치부, 2015, 2013)」을 바탕으로 면적대비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문화향유 공급 실태를 분석함.
- 기존의 2차 자료에서 제한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⁸ 결과를 분석함.
-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을 통해 농어촌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도시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8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REI 현지통신원’풀을 활용하여 전국 농어업인 대상 웹과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530부(웹 설문 352부, 우편 설문 178부)를 분석용 표본으로 사용함.

1.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향유활동을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수요를 파악함.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등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각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율, 참여의향,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분석·제시함.
- 2차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수요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제시함.
 - 설문조사를 통해 각 문화향유활동 참여횟수, 삶에 미치는 효과,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시설 접근성 인식, 프로그램 인식수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1.1. 전반적 현황

■ 주된 문화향유활동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참여 순위는 ‘TV 및 라디오시청(29.2%)’, ‘휴식활동(17.8%)’, ‘스포츠 참여활동(17.5%)’, ‘사회활동(14.4%)’, ‘문화예술 관람활동(5.4%)’ 등 임.
 - 전체 활동 중 문화향유활동의 비율은 29.1%로서 낮은 수준임.

- 문화향유활동의 연령대별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가 ‘스포츠 참여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응답함.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관광활동’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하락함.

- 특히 농어촌 인구구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 연령대(‘70대 이상’)의 전반적 활동비율이 8.6%로 다른 연령대의 활동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표 2-1. 주된 문화향유활동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사회 활동	취미 활동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신문/ 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농어촌 주민(3,929)		5.4	1.4	1.5	17.5	3.3	14.4	4.8	17.8	29.2	2.0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874)	13.7	2.0	1.3	23.0	6.2	10.1	7.6	15.0	13.0	1.8	5.9
	40대(762)	8.0	1.3	3.7	23.2	4.8	7.6	5.5	17.2	22.8	3.2	1.9
	50대(756)	2.4	1.9	1.2	19.4	3.4	13.1	4.6	20.6	29.6	2.2	0.9
	60대(611)	0.7	1.0	1.0	13.9	2.0	15.3	4.5	18.0	40.7	1.6	0.6
	70대 이상(843)	0.8	0.9	0.7	6.0	0.2	24.8	1.9	18.7	44.3	1.0	-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이 대도시 주민보다 문화향유활동을 조금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의 여가활동 유형 순위 중 문화향유활동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8.7%로 대도시주민의 응답비율인 11.5%보다 낮은 수준임.

- 전반적 활동순위는 비슷하나 농어촌 주민들은 대도시 주민들 보다 ‘문화예술 관람활동(0.7%)’과 ‘스포츠 참여활동(5.1%)’을 상대적으로 덜 하고 ‘관광활동(1.0%)’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1순위(복수응답)

(단위: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농어촌 주민	0.7	0.6	1.3	5.1	1.0	4.6	17.0	69.6
대도시 주민	1.4	0.4	1.3	8.1	0.3	5.3	22.8	60.3

주: 사례수=10,03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희망하는 문화향유활동

-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관광활동(30.7%)’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스포츠 참여활동(18.3%)’, ‘휴식활동(14.8%)’, ‘문화예술 관람활동(11.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문화향유활동은 7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3. 희망하는 문화향유활동

(단위: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사회 활동	취미 활동	휴식 활동	기타 활동
11.6	7.9	3.5	18.3	30.7	3.8	9.2	14.8	0.2

주: 사례수=3,930명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문화향유활동 참여횟수 및 희망하는 참여횟수

- 본 연구에서 시행한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참여활동’을 월 4.7회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스포츠 관람활동의 경우 년 2.3회 로 가장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각 활동별 희망하는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특히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에 대한 희망 참여횟수가 현재 참여횟수 대비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2-4. 문화향유 참여횟수 및 희망 참여횟수

(단위: 명, 회)

문화향유활동	사례수	현재 참여횟수	사례수	향후 희망하는 참여횟수
문화예술 관람활동	434	년 3.6회	430	년 7.3회
문화예술 참여활동	394	년 3.9회	391	년 7.7회
스포츠 관람활동	379	년 2.3회	378	년 5.3회
스포츠 참여활동	392	월 4.7회	383	월 7.7회
관광활동	473	년 4.2회	456	년 6.6회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남성과 여성의 문화향유 참여횟수와 희망하는 참여횟수를 비교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포츠 관람활동(각 년 2.6회, 년 5.8회)’, ‘스포츠 참여활동(각 월 5.1회, 월 7.9회)’에 대한 참여횟수와 희망횟수가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활동(각 년 4.1회, 년 8.2회)’, ‘문화예술 참여활동(각 년 5.2회, 년 9.5회)’, ‘관광활동(각 년 4.8회, 년 7.7회)’에 대한 참여횟수와 희망횟수가 더 높게 나타남.

표 2-5. 성별 문화향유 참여횟수 및 희망 참여횟수

(단위: 명, 회)

문화향유 활동	남성				여성			
	사례수	현재 참여횟수	사례수	향후 희망하는 참여횟수	사례수	현재 참여횟수	사례수	향후 희망하는 참여횟수
문화예술 관람활동	338	년 3.5회	336	년 7.1회	87	년 4.1회	85	년 8.2회
문화예술 참여활동	304	년 3.6회	305	년 7.2회	83	년 5.2회	80	년 9.5회
스포츠 관람활동	299	년 2.6회	300	년 5.8회	75	년 1.1회	72	년 3.3회
스포츠 참여활동	311	월 5.1회	305	월 7.9회	75	월 3.1회	73	월 7.2회
관광활동	377	년 4.1회	366	년 6.4회	87	년 4.8회	82	년 7.7회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평일/휴일별 문화향유활동

- 농어촌 주민이 평일에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참여 순위는 ‘휴식활동(95.3%)’, ‘취미오락활동(76.7%)’, ‘사회 및 기타활동(77.1%)’ 등으로 나타남.
 - 문화향유활동인 ‘스포츠 활동(42.0%)’, ‘관광활동(31.2%)’, ‘문화예술 활동(23.4%)’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평일과 휴일 모두 대도시 주민의 문화향유활동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어촌 주민과 대도시 주민 모두 휴일에 문화향유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평일에 비해 휴일의 참여율이 두 배 정도임.
 - 단, 대도시 주민의 경우 휴일보다 평일에 스포츠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평일/휴일별 문화향유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사례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관람+문화 예술참여)	스포츠 활동 (스포츠관람+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평 일	농어촌 주민	23.4	42.0	31.2	77.1	76.7	95.3
	대도시 주민	33.1	53.0	32.4	81.3	84.6	95.9
휴 일	농어촌 주민	44.0	43.3	57.7	85.1	79.1	91.2
	대도시 주민	61.8	51.7	67.1	88.8	88.2	94.3

주: 사례수=10,03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주된 문화향유활동 장소

- ‘문화예술 관람활동’은 ‘민간시설(72.3%)’, ‘문화예술 참여활동’은 ‘읍/면 공공시설(31.6%)’, ‘스포츠관람활동’은 ‘자택(40.0%)’, ‘민간시설(39.2%)’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참여활동’은 ‘민간시설(33.1%)’, ‘관광활동’은 ‘민간시설(49.7%)’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주된 문화향유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자택(집)	시/군 공공시설	읍/면 공공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민간시설	기타
문화예술 관람활동(212)	4.9	17.4	1.7	2.5	72.3	1.3
문화예술 참여활동(56)	16.9	10.6	31.6	3.4	26.4	11.1
스포츠 관람활동(61)	40.0	4.7	8.1	8.1	39.2	-
스포츠 참여활동(685)	4.6	7.7	19.7	16.0	33.1	18.9
관광활동(131)	3.4	11.4	0.4	1.3	49.7	33.7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

- 지난 1년간 농어촌 주민의 50.9%가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공간별 이용률은 ‘주민자치센터(37.4%)’, ‘박물관(14.9%)’, ‘시군구민회관(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의 경우 농어촌 주민에 비해 문화예술 이용경험 비율이 54.6%로 다소 높게 나타남. 문화예술 공간별 이용률은 ‘주민자치센터(33.3%)’, ‘박물관(16.9%)’, ‘도서관(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8.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

(단위: %)

구분	공간 이용		문화예술 공간별 이용률										
	경험있음	경험없음	시군구민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사회문화교실	시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농어촌 주민	50.9	49.1	11.7	8.8	10.6	1.6	1.3	8.0	14.9	0.4	1.0	5.9	37.4
대도시 주민	54.6	45.4	8.3	5.9	2.8	2.3	0.9	10.6	16.9	0.2	1.5	8.6	33.3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에 비해 ‘복지회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문화향유시설

- 여가 및 문화향유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친교 및 휴식시설(찜질방, 공원, 마을회관 등)’ 비중이 27.4%로 가장 높음. 뒤를 이어, ‘체육시설(체력단련시설,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이 21.2%, ‘문화예술시설(영화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이 18.3%, ‘취미활동시설(문화센터, 동아리 활동 공간,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 17.4%, ‘관광 및 오락시설(삼림욕장, 유원지, 쇼핑몰 등)’이 9.8%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화예술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친교, 휴식 시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높아짐.

표 2-9. 희망하는 문화향유시설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관광, 오락시설	취미활동 시설	친교, 휴식시설	기타
농어촌 주민(3,845)		18.3	21.2	9.8	17.4	27.4	5.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860)	29.6	21.3	12.2	19.3	7.5	10.1
	40대(761)	26.4	22.5	9.4	18.7	14.9	8.1
	50대(738)	14.4	23.2	10.0	18.7	28.6	5.0
	60대(597)	10.0	22.1	8.0	18.1	38.5	3.3
	70대 이상(809)	7.0	15.6	8.4	13.4	54.0	1.6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문화향유활동 만족도

- 농어촌 주민의 가장 만족하는 여가활동의 순위는 ‘휴식활동(27.9%)’, ‘취미 오락활동(24.8%)’, ‘사회 및 기타활동(17.5%)’, ‘스포츠 참여활동(11.3%)’, ‘관광활동(9.1%)’, ‘문화예술 관람활동(5.5%)’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의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 유형 중에서 문화향유활동의 전체 비율은 29.9%를 차지함.
- 대도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어촌 주민은 문화향유활동에서 ‘관광활동(9.1%)’을 상대적으로 더 만족함. 반면에 ‘문화예술 관람활동(5.5%)’, ‘스포츠 참여활동(11.3%)’에 상대적으로 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가장 만족스러운 문화향유활동 유형-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활동
농어촌 주민	5.5	2.2	1.8	11.3	9.1	17.5	24.8	27.9
대도시 주민	8.4	1.8	1.9	16.7	5.7	13.4	27.3	24.7

주: 사례수=10,03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향유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향유활동이 삶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관광활동’이 삶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92.1%(‘긍정적’ 50.0% + ‘매우 긍정적’ 42.1%)로 가장 높음.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과 맥을 같이 함.
 - ‘스포츠 관람활동’이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4%(‘긍정적’ 54.1% + ‘매우 긍정적’ 16.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1. 문화향유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명)

문화향유활동(사례수)	삶에 미치는 효과				
	매우 부정적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문화예술 관람활동(477)	0.8	1.3	16.8	60.6	20.5
문화예술 참여활동(456)	0.2	2.4	24.1	52.0	21.3
스포츠 관람활동(449)	0.9	2.7	26.1	54.1	16.3
스포츠 참여활동(447)	1.1	3.6	23.5	45.2	26.6
관광활동(494)	0.4	0.6	6.9	50.0	42.1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1.2.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농어촌 주민은 57.7%로 나타남. 평균 직접 관람횟수는 3.8회임.
- 대도시 주민의 경우 문화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이 75.3%, 직접 관람 평균횟수 5.4회로 농어촌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도시 주민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4회 이상 관람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농어촌 주민의 경우는 36.1%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2.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 및 직접 관람횟수

(단위: %, 회)

구분	직접 관람률		직접 관람횟수					관람 안함	평균 (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농어촌 주민	57.7	42.3	5.5	9.5	6.6	36.1	42.3	3.8	
대도시 주민	75.3	24.7	5.9	10.3	9.1	49.9	24.7	5.4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별 직접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가 50.3%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대중음악(10.8%)’, ‘미술(8.8%)’, ‘뮤지컬(8.3%)’, ‘연극(8.3%)’, ‘전통예술(8.2%)’ 등의 순임.
- 대도시 주민들 역시 ‘영화’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농어촌이 도시보다 직접 관람률이 떨어짐.

표 2-13. 프로그램별 직접 관람률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농어촌 주민	5.7	8.8	4.1	8.2	8.3	8.3	2.3	50.3	10.8
대도시 주민	6.3	11.7	4.0	4.6	14.8	13.0	1.9	70.4	15.8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의향

- 농어촌 주민 중 74.0%가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관람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냄.
 - 구체적으로는 ‘영화(61.9%)’, ‘대중음악(23.8%)’, ‘연극(16.1%)’, ‘뮤지컬 (15.9%)’ 등의 순위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의 직접 관람 의향률은 89.1%로 농어촌 주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각 문화예술 프로그램별 관람의향 순위는 농어촌 주민과 비슷하게 나타남.

표 2-14.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의향률

(단위: %)

구분	직접 관람 의향률		문화예술 프로그램별 의향률									
	있음	없음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 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의향 없음
농어촌 주민	74.0	26.0	8.3	12.0	6.5	14.3	16.1	15.9	8.5	61.9	23.8	26.0
대도시 주민	89.1	10.9	13.0	16.0	9.8	10.7	29.5	28.5	7.7	82.5	33.2	10.9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선택기준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관람 선택기준은 ‘내용 및 수준(38.2%)’, ‘접근성(18.2%)’, ‘비용의 적절성(18.0%)’ 순서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 역시 ‘내용 및 수준(38.5%)’을 주요 관람선택 기준으로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비해 ‘비용의 적절성(29.7%)’을 더 많이 고려함. 반면에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에 비해 ‘접근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5. 관람 선택 기준-관람의향이 있는 경우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내용 및 수준	비용의 적절성	참가자 유명도	프로그램 장소의 유명도	교통의 편의성	편의 시설	전문 가 의견	주위 의견	접근 성	기타
농어촌 주민(1,408)	38.2	18.0	5.4	3.0	7.1	3.5	2.4	3.9	18.2	0.2
대도시 주민(3,770)	38.5	29.7	4.9	1.8	4.7	5.2	2.8	2.9	9.5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애로사항

- 농어촌 주민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집적관람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비용(21.5%)’를 비롯하여 ‘근처에 시설 없음(18.2%)’, ‘시간(17.3%)’, ‘관련정보 부족(16.7%)’을 언급함.
- 대도시 주민의 경우 농어촌 주민과 마찬가지로 ‘비용(39.5%)’, ‘시간(19.4%)’, ‘관련정보 부족(16.8%)’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에 비하여 ‘교통(10.8%)’, ‘근처에 시설 없음(18.2%)’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16. 직접 관람 애로사항

(단위: %)

구분	비용	시간	프로그램 없음	교통	편의시설	관련정보 부족	관람할 사람 없음	근처에 시설 없음	기타
농어촌 주민	21.5	17.3	11.3	10.8	1.0	16.7	2.3	18.2	0.9
대도시 주민	39.5	19.4	11.1	3.7	0.8	16.8	2.0	6.4	0.2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지역 및 관람방법

-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가 80.5%,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가 19.5%로 나타남.
- 대도시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가 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비율이 높음.
- 관람방법 분석결과 ‘입장권 구입(84.2)’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대도시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대권 관람(7.2%)’이나 ‘무료프로그램(8.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7.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지역 및 관람방법-관람횟수 1회 이상인 경우

(단위: %, 명)

구분(사례수)	관람지역		관람방법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	입장권 구입	초대권 관람	무료 프로그램	기타
농어촌 주민 (1,051)	80.5	19.5	84.2	7.2	8.7	0.2
대도시 주민 (3,132)	97.4	2.6	94.3	3.4	2.1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현황

-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농어촌 주민은 4.0%,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주민은 96.0%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 역시 농어촌 주민과 비슷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9%. 참여경험 없는 응답자가 94.1%로 집계됨.
- 프로그램별 참여율은 미술이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전 영역에서 0.3%에서 1.4%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2-18.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프로그램별 참여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경험		프로그램별 참여율								
	있음	없음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농어촌 주민	4.0	96.0	0.7	1.4	0.3	0.2	0.8	1.0	0.3	0.4	0.8
대도시 주민	5.9	94.1	1.0	2.1	0.4	0.1	2.3	1.5	0.1	0.2	1.0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의향

- 향후 1년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5.1%로 나타났으며, 참여할 의향이 없는 비율이 94.9%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11.1%,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88.9%로 농어촌 주민에 비해 참여 의향률이 소폭 높음.

- 프로그램별 참여의향은 ‘연극’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0.2%에서 1.5%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2-19.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비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프로그램 참여의향		프로그램별 참여의향								
	있음	없음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농어촌 주민	5.1	94.9	0.2	0.6	0.6	1.1	1.5	0.4	0.2	0.3	0.8
대도시 주민	11.1	88.9	1.1	1.3	1.0	0.8	4.3	2.3	0.3	1.3	2.2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

- 농어촌 주민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시간부족(22.0%)’, ‘프로그램 없음(19.8%)’, ‘관련정보 부족(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은 ‘교통 불편’, ‘근처에 시설 없음’을 더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표 2-20.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높은 비용	시간 부족	프로그램 없음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불편	관련정보 부족	관람할 사람 없음	근처에 시설 없음
농어촌 주민	13.5	22.0	19.8	9.1	3.2	18.3	2.0	12.0
대도시 주민	21.0	27.7	18.5	4.8	3.9	16.5	3.0	4.4

주: 사례수=10,0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1.3. 관광활동

■ 여행경험 및 의향⁹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내나 국외의 여행경험이 있다고 밝힌 ‘여행 경험 층’은 45.0%로 나타났으며 ‘비 경험층’은 55.0%로 집계됨.
 - ‘여행 경험 층’(45.0%)은 ‘국내여행 경험 층(36.3%)’, ‘국내+국외여행 경험 층(6.0%)’, ‘국외여행 경험 층(2.7%)’순으로 구성됨.
- ‘여행 경험 층’의 평균여행횟수는 1년에 1.6회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균여행횟수가 많아짐.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증가함. 70대 이상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6.5%가 비경험자임.

표 2-21. 여행횟수

(단위: %, 회, 명)

구분(사례수)		평균	비 경험층	경험층(45.0%)			
				1회	2회	3회	4회 이상
응답자(3,939)		1.6회	55.0	14.2	11.6	5.9	13.3
응답자 연령	30대이하(874)	2.9회	37.0	15.5	14.7	7.5	25.5
	40대(768)	1.9회	47.8	12.1	14.9	7.7	17.6
	50대(758)	1.5회	52.7	14.8	12.5	8.1	12.0
	60대(613)	0.8회	63.6	16.3	10.4	4.0	5.7
	70대이상(844)	0.5회	76.5	13.4	5.5	2.3	2.2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⁹ 농촌진흥청의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의 경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대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간 비교가 불가함.

-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5.3%('조금 있는 편이다' 45.5% + '매우 많다' 39.8%)로 나타남.

표 2-22. 여행의향

(단위: %)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0.2	2.1	12.4	45.5	39.8

주: 사례수=523명(농어업인)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여행참여의 어려움

- 농어업인의 여행참여에 있어 주요 어려움은 '높은 비용(37.2%)', '시간부족(36.2%)'로 나타남.

표 2-23. 여행참여의 어려움

(단위: %, 명)

항목(사례수)	높은 비용	시간부족	관련정보 부족	어려움 없음	함께할 사람 없음	교통 불편
비중(506)	37.2	36.2	5.3	5.5	7.1	8.7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역사유적지 방문경험 및 방문의향

- 지난 1년간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율은 56.7%로 나타났으며, 방문빈도는 2.4회로 집계됨. 대도시 주민의 경우 방문경험 비율이 53.6%, 방문빈도가 2.2회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보다 소폭 낮은 값을 보임.

- 향후 1년간 역사유적지에 방문할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율은 76.9%로 높게 나타남. 대도시 주민 역시 역사유적지 방문의향 비율이 76.0%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

표 2-24. 역사문화 유적지의 방문경험 및 방문의향

(단위: %, 회, 명)

구분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경험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빈도		방문의향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방문빈도(회)	사례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농어촌 주민	10,039	56.7	43.3	1,137	2.4	10,039	76.9	23.1
대도시 주민	10,039	53.6	46.4	2,386	2.2	10,039	76.0	2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 역사유적지 만족도

- 역사유적지 방문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대체로 역사유적지(편의시설)에 만족(85.2%)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 역시 역사유적지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5.8%로 높게 나타남.

표 2-25. 역사유적지 편의시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농어촌 주민(1,137)	0.4	0.7	1.8	11.9	30.0	48.4	6.8
대도시 주민(2,386)	0.3	0.6	1.9	11.3	36.0	43.9	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 축제 방문경험 및 방문의향

- 지난 1년간 축제 방문 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율은 60.8%로 나타났으며, 방문빈도는 1.9회로 집계됨.
- 대도시 주민의 축제방문 경험 비율은 52.4%, 방문빈도는 1.6회로 농어촌 주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냄.

표 2-26. 축제 방문현황 및 방문의향

(단위: %, 회, 명)

구분	축제 방문경험			축제 방문빈도		축제 방문의향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방문빈도(회)	사례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농어촌 주민	10,039	60.8	39.2	1,244	1.9	10,039	78.3	21.7
대도시 주민	10,039	52.4	47.6	2,038	1.6	10,039	76.2	2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 축제 시설 만족도

- 축제방문 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의 축제 시설 만족도는 77.9%로 높게 나타남. 대도시 주민 역시 축제시설 만족도가 74.5%로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27. 축제 시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농어촌 주민(1,244)	0.3	1.1	3.1	17.6	29.8	43.4	4.7
대도시 주민(2,323)	0.4	1.6	2.7	20.8	35.7	34.8	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1.4. 스포츠 활동

■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30분 이상의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6.0%로 나타남. 경험층의 평균 경험 횟수는 9.8회로 나타남.
-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횟수로 ‘3-4회’ 비중이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10-15회 미만(19.6%)’, ‘5-10회 미만(19.4%)’, ‘1-2회(15.8%)’, ‘20-25회 미만(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횟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표 2-28. 스포츠 참여활동 경험 횟수

(단위: %, 명)

구분	경험여부		경험횟수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평균	1-2 회	3-4 회	5-10회 미만	10-15회 미만	15-20회 미만	20-25회 미만	25회 이상	
관람층	3,939	26.0	944	9.8회	15.8	20.2	19.4	19.6	7.5	9.5	8.0	
응답자 연령	30대이하	874	30.6	242	8.9회	16.8	24.0	15.6	18.8	10.1	12.2	2.6
	40대	768	33.1	220	8.6회	22.5	18.3	18.7	22.3	7.0	5.4	5.9
	50대	758	31.1	223	9.3회	14.5	25.8	21.2	15.9	3.8	10.8	8.0
	60대	613	22.2	133	12.1회	12.4	11.6	25.1	15.7	7.2	11.2	16.8
	70대이상	844	10.0	98	11.8회	8.6	17.5	21.9	16.4	12.8	9.7	13.1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스포츠 참여활동 중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남. 그 이후로는 ‘레저스포츠(17.3%)’, ‘구기운동(12.2%)’, ‘리듬스포츠(2.3%)’, ‘무도/격투기(1.0%)’ 순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걷기운동’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체력단련운동’의 비중은 감소함.

표 2-29. 주된 스포츠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사례수)		구기운동	라켓운동	무도/격투기	체력단련운동	레저스포츠	리듬스포츠	걷기	기타
농어촌 주민(1,023)		12.2	8.5	1.0	27.8	17.3	2.3	30.4	0.4
응답자 연령	30대이하(268)	11.9	11.1	2.5	32.7	17.3	2.2	22.2	-
	40대(254)	11.9	10.7	0.7	32.4	16.6	2.6	25.1	-
	50대(235)	12.9	5.6	-	24.8	22.8	1.5	31.9	0.5
	60대(135)	9.5	7.4	1.3	15.6	21.3	3.3	39.6	2.0
	70대이상(101)	17.4	5.1	-	15.7	6.6	2.9	51.8	0.4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향후 참여희망 스포츠 종목

- 농어촌 주민이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스포츠 종목으로는 ‘수영(9.9%)’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요가(9.5%)’, ‘골프(8.3%)’, ‘등산(5.8%)’ 등의 순임.
- 대도시 주민에 비해 ‘요가’, ‘골프’, ‘등산’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30. 향후 참여희망 스포츠 종목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수영	요가	골프	보디빌딩(헬스)	등산	테니스	댄스스포츠	스키	에어로빅	자전거
농어촌 주민(743)	9.9	9.5	8.3	5.0	5.8	2.5	2.8	3.2	2.6	2.4
대도시 주민(2,458)	11.7	7.3	6.2	4.9	3.8	3.1	3.7	2.5	3.8	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스포츠 참여활동 효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의 스포츠 참여활동의 효과로 ‘건강증진(37.0%)’ 및 ‘체력증진(32.4%)’이 주 효과로 나타남. 대도시 주민 역시 비슷한 순위를 나타냄.

표 2-31. 스포츠 참여활동 효과

(단위: %, 명)

구분(사례수)	건강증진	체력증진	스트레스 해소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	체육활동 자체의 즐거움	자기 만족	대인 관계 및 사고	스릴과 희열감 만끽
농어촌 주민(1,327)	37.0	32.4	12.6	9.5	3.0	2.1	2.4	1.2
대도시 주민(4,147)	32.6	29.2	15.2	12.5	3.7	2.3	2.1	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주민은 86.1%가 긍정적인 응답을, 대도시 주민은 90.5%가 긍정적 대답을 보임.

표 2-32. 스포츠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매우 부정적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 합계	5점평균
농어촌 주민(743)	0.0	0.0	13.9	65.8	20.3	86.1	4.1
대도시 주민(2,458)	0.0	0.1	9.4	72.9	17.6	90.5	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스포츠 참여활동 비 참여 이유

- 농어촌 주민이 스포츠 참여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체육활동 시간부족(56.5%)’,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56.0%)’,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 주민 역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과 비슷한 응답을 나타냄. 하지만 대도시 주민은 상대적으로 ‘체육활동 시간부족’을 더 많이 체감하고,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보다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의 응답비율이 더 높음.

표 2-33. 스포츠 참여활동 비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체육활동 시간부족	체육활동 에 대한 관심부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	체육활동 정보부족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체육활동 지출비용 대한 부담	소득수준 이 낮아서	체육활동 프로그램 이 부족해서	체육지도 자 수준이 떨어져서
농어촌 주민(457)	56.5	56.0	23.6	26.5	20.2	14.7	14.8	9.3	4.5	0.6
대도시 주민(1,354)	65.0	51.4	23.9	18.8	16.2	18.1	14.7	10.5	5.8	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스포츠 관람활동 경험 및 의향

-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에 참여한 농어업인은 40.6%로 나타남. 향후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에 참여의향이 있는 비율은 49.2%(‘조금 있는 편이다’ 34.9%+‘매우 많다’ 14.3%)로 나타남.

표 2-34. 스포츠 관람활동 경험 및 의향

(단위: %, 명)

최근 1년 이내 스포츠 관람활동 경험(사례수: 517)		향후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의향 (사례수: 519)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40.6	59.4	6.0	20.4	24.5	34.9	14.3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의 어려움

-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에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는 ‘시간 부족(36.3%)’, ‘교통 불편(25.8%)’ 이 나타남.

표 2-35.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의 어려움

(단위: %)

높은 비용	시간부족	경기 및 프로그램 부족	교통 불편	함께할 사람 없음	관련정보 부족	어려움 없음	기타
9.5	36.3	9.8	25.8	6.7	8.0	3.6	0.3

주: 농어업인 사례수=388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2.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 농어촌 주민이 문화향유활동을 향유함에 있어 기회(공급측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향유시설을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분함. 그리고 각 시설의 분포현황을 도시/농어촌(군)으로 나누어 분석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2015 문화기반시설총람’과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을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국궁장’)의 분포현황을 정리함.
- 각 시설의 분포현황을 지역별 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제시하기 위해 단위면적 100km² 내의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제시함.
 -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2013, 201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및 농어촌의 면적을 정리함. 이를 기준으로 면적당 시설 수를 계산하여 비교·분석함.

-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이용시설’, ‘주요이동 수단’, ‘평균소요시간’, ‘접근성 인식’, ‘평균 비용’, ‘시설 수 인식도’, ‘이용 시 애로사항’을 분석함.
- 농어촌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인식도’, ‘경험’,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향후 참여의향’, ‘참여시 애로사항’을 분석함.
 - 농어촌 문화향유 프로그램은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토요문화학교’,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이모작 사업’, ‘예술 꽃 씨앗학교’, ‘예술 체험 원정대’, ‘실버문화대축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문화가 있는 날’, ‘기타’로 구분함.

2.1. 농어촌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 전국 인구 및 면적 현황

- 행정자치부의 ‘201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군구의 면적 현황을 도시/도농복합시/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2015년 1월 1일 기준 전국 총 면적은 100,326.25km²이며, 그 중 도시 면적은 6,645.16km²(6.6%), 도농복합시 면적은 38,793.25km²(38.7%), 군 면적은 54,887.84km²(54.7%)로 나타남.
- 전국의 면적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에서 제시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을 단위면적 100km² 내의 문화기반시설 수로 표현함.

표 2-36.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 현황

(단위: %, km²)

구분	면적(km ²)	면적비율(%)
도시	6,645.16	6.6
도농복합시	38,793.25	38.7
군	54,887.84	54.7
전체합계	100,326.25	100.0

자료: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분포현황

- 전국의 ‘공공도서관’ 총 수는 930개 이며 그 중 599개는 도시에, 153개는 도농복합시에, 178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내 ‘공공도서관’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9.0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3개) 보다 훨씬 높음.

- 전국의 ‘박물관’ 총 수는 809개이며 그 중 282개가 도시지역에, 341개가 도농복합시에, 186개가 군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면적 100km²내 ‘박물관’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4.2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3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7.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599	9.0	282	4.2
도농복합시	153	0.4	341	0.9
군	178	0.3	186	0.3
전체합계	930	0.9	809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미술관 및 문예회관 분포현황

- 전국의 ‘미술관’ 총 수는 204개 이며 그 중 91개는 도시에, 65개는 도농복합시에, 48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내 ‘미술관’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4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1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전국의 ‘문예회관’ 총 수는 232개 이며 그 중 87개는 도시에, 72개는 도농복합시에, 73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내 ‘문예회관’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3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1개)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8. 미술관 및 문예회관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미술관		문예회관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91	1.4	87	1.3
도농복합시	65	0.2	72	0.2
군	48	0.1	73	0.1
전체합계	204	0.2	232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분포현황

- 전국의 ‘지방문화원’ 총 수는 229개 이며 그 중 87개는 도시에, 61개는 도농복합시에, 81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내 ‘지방문화원’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3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2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전국의 ‘문화의집’ 총 수는 116개 이며 그 중 38개는 도시에, 51개는 도농복합시에, 27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내 ‘문화의집’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0.6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1개)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9.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87	1.3	38	0.6
도농복합시	61	0.2	51	0.1
군	81	0.2	27	0.1
전체합계	229	0.2	116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전체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 전국의 전체 문화기반시설 총 수는 2,520개 이며 그 중 1,184개는 도시에, 743개는 도농복합시에, 593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당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7.8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1.1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표 2-40. 전체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문화기반시설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1,184	17.8
도농복합시	743	1.9
군	593	1.1
전체합계	2,520	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2. 농어촌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

■ 전국 인구 및 면적 현황

- 행정자치부의 ‘201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군구의 인구 및 면적 현황을 도시/도농복합시/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2013년 1월 1일 기준 전국 총 면적은 100,266.89km²이며, 그 중 도시 면적은 5,851.86km²(5.8%), 도농복합시 면적은 38,170.19km²(38.1%), 군 면적은 56,244.84km²(56.1%)로 나타남.
- 전국의 면적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2014 전국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2013년 기준)’에서 제시한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을 단위면적 100km² 내의 공공체육시설 수로 나타냄.

표 2-41.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 현황

(단위: %, km²)

구분	면적(km ²)	면적비율(%)
도시	5,851.86	5.8
도농복합시	38,170.19	38.1
군	56,244.84	56.1
전체합계	100,266.89	100.0

자료: 행정자치부, 201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분포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육상경기장’ 총 수는 236개 이며 그 중 49개는 도시에, 95개는 도농복합시에, 92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육상경기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0.8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2개)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전국의 ‘축구장’ 총 수는 801개 이며 그 중 244개는 도시에, 253개는 도농복합시에, 304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축구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4.2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5개)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2-42.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육상경기장		축구장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49	0.8	244	4.2
도농복합시	95	0.3	253	0.7
군	92	0.2	304	0.5
전체합계	236	0.2	801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야구장 및 테니스장 분포현황

- 전국의 ‘야구장’ 총 수는 169개 이며 그 중 55개는 도시에, 81개는 도농복합시에, 33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야구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0.9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1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전국의 ‘테니스장’ 총 수는 660개 이며 그 중 208개는 도시에, 219개는 도농복합시에, 233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테니스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3.6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4개)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2-43. 야구장 및 테니스장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야구장		테니스장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55	0.9	208	3.6
도농복합시	81	0.2	219	0.6
군	33	0.1	233	0.4
전체합계	169	0.2	660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분포현황

○ 전국의 ‘체육관’ 총 수는 819개 이며 그 중 331개는 도시에, 270개는 도농복합시에, 218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체육관’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5.7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4개)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전국의 ‘게이트볼장’ 총 수는 1,090개 이며 그 중 69개는 도시에, 412개는 도농복합시에, 609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게이트볼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2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1.1개)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44.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체육관		게이트볼장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331	5.7	69	1.2
도농복합시	270	0.7	412	1.1
군	218	0.4	609	1.1
전체합계	819	0.8	1,090	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수영장 및 국공장 분포현황

- 전국의 ‘수영장’ 총 수는 334개이며 그 중 201개는 도시에, 85개는 도농복합시에, 48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수영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3.4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1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전국의 ‘국공장’ 총 수는 249개이며 그 중 54개는 도시에, 88개는 도농복합시에, 107개는 군에 위치함.
 - 단위면적 100km² 당 ‘국공장’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0.9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0.2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45. 수영장 및 국공장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수영장		국공장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201	3.4	54	0.9
도농복합시	85	0.2	88	0.2
군	48	0.1	107	0.2
전체합계	334	0.3	249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전체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

- 전국의 전체 공공체육시설은 수는 4,358개이며, 그 중 1,211개가 도시지역에, 1,503개가 도농복합시에, 1,644개가 군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면적 100km² 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20.7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2.9개) 보다 면적당 공공체육시설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6. 전국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공공체육시설	
	개수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1,211	20.7
도농복합시	1,503	3.9
군	1,644	2.9
전체합계	4,358	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2.3.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시설 인식 현황

■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은 ‘문화예술 관람시설(54.2%)’로 나타남. 반면에 ‘스포츠 관람시설’은 이용비중이 4.5%로 가장 낮음.
- 개별 이용시설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영화관’의 이용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문예회관(9.6%)’, ‘복지회관(8.4%)’, ‘주민센터(6.8%)’, ‘체육센터(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7.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단위: %, 명)

시설그룹명(사례수:310)	비중	주요 이용시설(사례수: 370)					
문화예술 관람시설	54.2	영화관 (34.8%)	문예회관 (9.6%)	공연장 (4.8%)	전시관 (2.4%)	박물관 (1.6%)	
문화예술 참여시설	24.8	문예회관(중복) (9.6%)	복지회관 (8.4%)	주민센터 (6.8%)	문화센터 (4.4%)	문화원 (3.2%)	도서관 (3.2%)
스포츠 관람시설	4.5	경기장 (1.6%)					
스포츠 참여시설	16.5	체육센터 (6.8%)	실외운동시설 (6.4%)	체육관 (3.2%)	운동장 (2.8%)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을 비교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모두 ‘문화예술 관람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예술 관람시설’의 이용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스포츠 참여시설’ 이용비중은 높아짐.

표 2-48. 연령별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단위: %, 명)

시설그룹명	연령대				
	30대 (사례수:10명)	40대 (사례수:44명)	50대 (사례수:118명)	60대 (사례수:94명)	70세이상 (사례수:42명)
문화예술 관람시설	90.0	81.8	53.4	43.6	42.9
문화예술 참여시설	-	9.1	31.4	27.7	21.4
스포츠 관람시설	-	.0	3.4	7.4	7.1
스포츠 참여시설	10.0	9.1	11.9	21.3	28.6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성별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이용정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스포츠 참여시설(19.9%)’, ‘스포츠 관람시설(5.9%)’을 더 많이 이용함.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시설(57.7%)’, ‘문화예술 참여시설(36.6%)’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9. 성별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단위: %, 명)

시설그룹명	성별	
	남성(사례수: 236)	여성(사례수: 71)
문화예술 관람시설	53.0	57.7
문화예술 참여시설	21.2	36.6
스포츠 관람시설	5.9	0.0
스포츠 참여시설	19.9	5.6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시설 이동수단 및 평균소요시간

- 주로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 이동에 있어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74.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평균소요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이내(27.9%)’, ‘15분 이상 30분 이내(24.1%)’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0. 문화향유시설 이동수단 및 평균소요시간

(단위: %, 명)

주요이동수단(사례수: 480)	비중(%)	평균소요시간(사례수: 494)	비중(%)
자가용	74.8	5분 이내	2.4
버스	20.6	5분 이상 15분 이내	14.2
도보	3.5	15분 이상 30분 이내	24.1
기차	0.8	30분 이상 1시간 이내	27.9
기타	0.2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15.4
		2시간 이상	16.0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시설 이동 평균소요시간을 살펴본 결과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평균소요시간이 타 지역 거주민에 비해 길게 나타남.
- ‘30분 이상 1시간 이내’ 40.8%, ‘2시간 이상’ 21.1%.

표 2-51.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시설 이동 평균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읍 소재지 (73)	면 소재지 (114)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차로 15분 이내 소요)(225)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차로 15분 이상 소요)(76)
평균 소요 시간	5분 이내	6.6	2.6	1.8	
	5분 이상 15분 이내	23.7	18.4	12.4	3.9
	15분 이상 30분 이내	25.0	16.7	30.7	15.8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7.1	27.2	27.1	40.8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2.4	13.2	13.3	18.4
	2시간 이상	5.3	21.9	14.7	21.1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체감

- 주로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의 접근성 체감을 확인한 결과 ‘멀다(34.9%)’와 ‘매우 멀다(6.8%)’가 ‘가깝다(11.2%)’와 ‘매우 가깝다(2.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2-52.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인식

(단위: %)

매우 멀다	멀다	보통이다	가깝다	매우 가깝다
6.8	34.9	45.1	11.2	2.0

주: 사례수=농어업인 501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거주민이 문화향유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먼 것으로 인식함.
- ‘멀다’ 43.6%, ‘매우 멀다’ 16.7%.

표 2-53.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인식

(단위: %, 명)

구분(사례수)	매우 멀다	멀다	보통이다	가깝다	매우 가깝다
읍 소재지(73)	2.7	28.8	43.8	21.9	2.7
면 소재지(117)	5.1	33.3	45.3	14.5	1.7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차로 15분 이내 소요)(229)	5.7	35.4	47.2	9.2	2.6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차로 15분 이상 소요)(78)	16.7	43.6	37.2	2.6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시설 이용 평균비용

- 주로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의 평균 이용비용은 ‘1만원 이내(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이후로는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23.3%)’,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4. 문화향유시설 이용 평균비용(1회 이용기준)

(단위: %)

비용 범위	비중(%)	비용 범위	비중(%)
무료	13.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6.4
1만원 이내	34.3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2.2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3.3	15만원 이상	4.2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16.1		

주: 사례수=농어업인 498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시설 수 인식도

- 각 문화향유시설 수의 인식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이 55.3%로 나타남. 반면에 충분하다(‘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1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스포츠 관람시설’의 수를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로 가장 높음. (‘부족한 편이다’ 28.7% + ‘매우 부족하다’ 38.4%)
 - ‘스포츠 참여 시설’의 경우 ‘부족한 편이다’ 29.5%, ‘매우 부족하다’ 2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2-55. 문화향유시설 수 인식도

(단위: %, 명)

시설종류(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문화예술 관람시설(508)	25.6	31.3	29.9	11.2	2.0
문화예술 참여시설(493)	23.3	31.8	32.0	11.6	1.2
스포츠 관람시설(492)	38.4	28.7	23.8	7.5	1.6
스포츠 참여시설(488)	25.2	29.5	32.2	11.9	1.2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

- 문화향유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35.6%)’로 나타났으며, ‘교통 불편(12.7%)’, ‘높은 비용(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6.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어려운 점	비중	어려운 점	비중
높은 비용	11.9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부족	9.8
시간부족	35.6	관련정보부족	10.4
시설부족	8.8	함께할 사람 없음	4.8
교통 불편(접근성이 안 좋음)	12.7	어려움 없음	4.4
시설의 불편	1.5	기타	

주: 사례수=농어업인 520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거주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부족(12.3%)’, ‘교통 불편(18.5%)’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7.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읍 소재지 (78)	면 소재지 (120)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차로 15분 이내 소요)(236)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차로 15분 이상 소요)(81)
높은 비용	10.3	10.8	12.7	11.1
시간부족	30.8	38.3	36.9	34.6
시설부족	7.7	6.7	9.3	12.3
교통 불편 (접근성이 안 좋음)	11.5	15.0	9.3	18.5
시설의 불편	-	-	2.5	2.5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부족	9.0	9.2	10.6	9.9
관련정보부족	16.7	10.8	10.2	4.9
함께할 사람 없음	9.0	4.2	4.2	2.5
어려움 없음	5.1	5.0	4.2	3.7
기타	-	-	-	-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2.4.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 현황

■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 및 경험유무

-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조금 안다' 58.6% + '잘 안다' 6.2%)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을 조사한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9.7%로 나타났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경험횟수는 년 3.7회로 나타남.

표 2-58.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 및 경험유무

(단위: %, 회, 명)

프로그램 인식도(사례수: 519)			프로그램 참여경험(사례수: 328)		평균 경험횟수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있다	없다	
35.2	58.6	6.2	49.7	50.3	년 3.7회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조금 안다', '잘 안다'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 여성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가 각각 75.0%, 7.6%인 반면 남성은 '조금 안다'와 '잘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0%, 5.7%로 나타남.
-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읍 소재지'와 '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프로그램 인식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읍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조금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7%,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7%임. 한편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은 '조금 안다'가 52.6%, '잘 안다'가 2.6%를 차지함.

표 2-59. 성별과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성별	남성(418)	39.2	55.0	5.7
	여성(92)	17.4	75.0	7.6
거주지 특성	읍 소재지(79)	31.6	55.7	12.7
	면 소재지(121)	28.9	62.8	8.3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차로 15분 이내 소요)(237)	36.7	59.5	3.8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차로 15분 이상 소요)(78)	44.9	52.6	2.6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

-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참가의향을 조사한 결과 ‘조금 있는 편이다(40.7%)’, ‘매우 많다(11.8%)’가 ‘없는 편이다(15.0%)’, ‘전혀 없다(3.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0.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
(단위: %)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3.1	15.0	29.3	40.7	11.8

주: 사례수=농어업인 508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성별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조금 있는 편이다’ 51.1%, ‘매우 많다’ 15.6%)이 남성(‘조금 있는 편이다’ 38.3%, ‘매우

많다' 11.2%) 보다 참여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61. 성별에 따른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향

(단위: %, 명)

구분(사례수)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남성(410)	3.9	16.3	30.2	38.3	11.2
여성(90)	-	8.9	24.4	51.1	15.6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주로 참여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경험자 대상)

- 문화향유 프로그램 경험자를 대상으로 주로 참여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작은 영화관'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실버 문화 대축제(12.3%)', '신바람 놀이문화사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2. 주로 참여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단위: %)

프로그램명	비중	프로그램명	비중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10.3	예술체험 원정대	3.4
토요문화학교	6.8	실버문화 대축제	12.3
작은 도서관	15.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4
작은 영화관	28.1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1.4
문화이모작사업	2.7	문화가 있는 날	8.2
예술 꽃 씨앗학교	2.1	기타	7.5

주: 사례수=농어업인 146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 프로그램 만족도(경험자 대상)

- 문화향유 프로그램 경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만족함' 30.5% + '매우 만족함' 4.0%)로 나타남.
-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불만족' 5.1% + '매우 불만족' 1.1%)로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

표 2-63. 문화향유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함	매우 만족함
1.1	5.1	59.3	30.5	4.0

주: 사례수=농어업인 177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 어려움

-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느끼는 주요 어려움으로 '시간부족(35.0%)'이 나타남.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정보부족(33.4%)', '함께할 사람 없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4.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가의 어려움

(단위: %)

어려운 점	비중	어려운 점	비중
프로그램 정보부족	33.4	함께할 사람 없음	8.8
시간부족	35.0	높은 비용	3.2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교통 불편	8.0	어려움 없음	4.6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불만족	6.6	기타	0.2

주: 사례수=농어업인 499명

자료: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3.1.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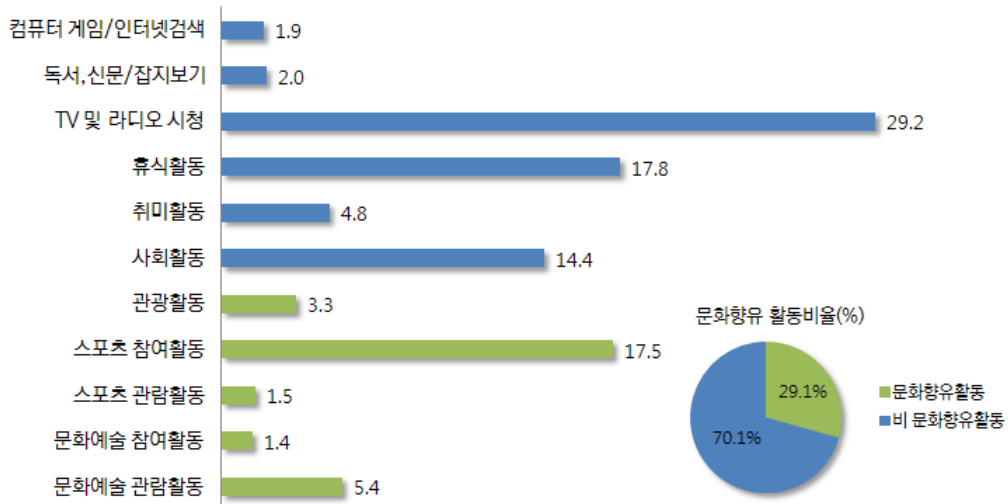
■ 전반적 활동

○ 농어촌 주민은 여가시간에 주로 ‘TV 및 라디오시청(29.2%)’, ‘휴식 활동(17.8%)’에 참여함. 문화향유활동 가운데 ‘스포츠 참여활동(17.5%)’에 가장 적극적이며, ‘문화예술 관람활동(5.4%)’의 비중은 높지 않음. 전체 활동에서 문화향유활동의 비율은 29.1%에 불과함.

- 연령별 분석결과 70대 이상의 경우 ‘TV 및 라디오 시청(44.3%)’, ‘휴식(18.7%)’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적 문화향유 활동 참여비율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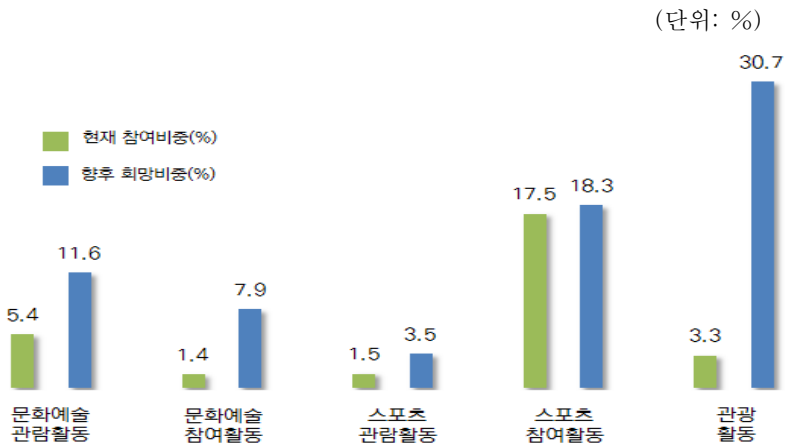
그림 2-1.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

(단위: %)



- 한편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관광활동(30.7%)’, ‘스포츠 참여활동(18.3%)’, ‘휴식활동(14.8%)’, ‘문화예술 관람활동(11.6%)’ 순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여가활동 중 문화향유활동의 비중은 72.0%로 높게 나타남(그림 2-2).
- 문화향유활동 참여횟수를 살펴본 결과 ‘스포츠 참여활동’을 월 4.7회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스포츠 관람활동’은 년 2.3회로 가장 적게 함(그림 2-3).
- 향후 희망하는 참여횟수는 현재 참여횟수에 비해 1.5배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화향유활동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높은 욕구를 나타냄.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 횟수와 희망횟수가 높게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횟수와 희망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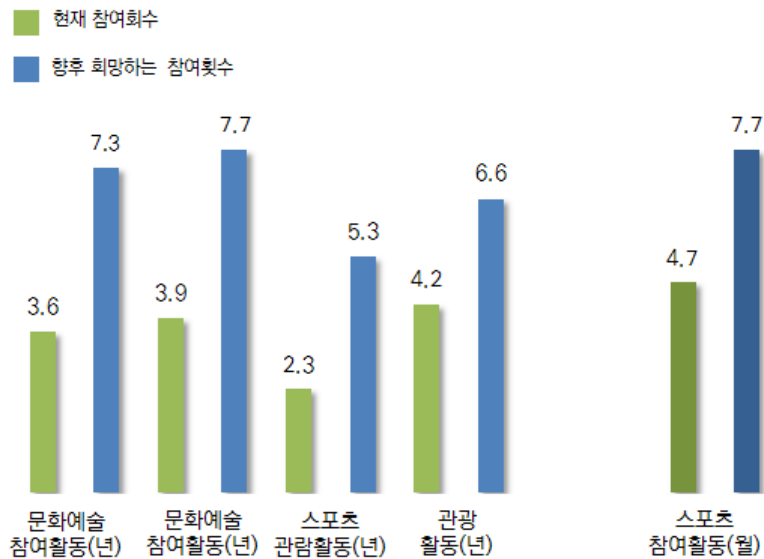
그림 2-2. 문화향유활동 참여비중 및 희망비중



- 문화여가 향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친교 및 휴식시설(짬질방, 공원, 마을회관 등)(2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체육시설(체력단련시설,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21.2%)’, ‘문화예술시설(영화관, 공연시설 등)(18.3%)’순으로 꼽음.
- 문화향유활동이 삶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활동을 긍정적이다(‘긍정적’+‘매우 긍정적’)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에서 92.1%로 높게 나타남.
 - ‘관광활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 문화향유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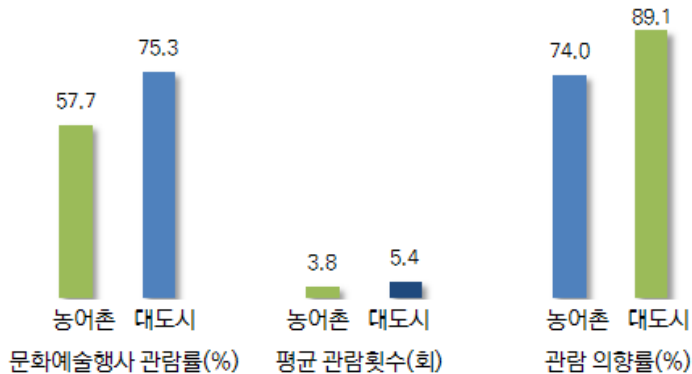
(단위: 회)



■ 문화예술 활동

- 최근 1년 이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한 농어촌 주민의 비율은 57.7%로 나타났으며, 평균 관람횟수는 3.8회임. 대도시 주민의 경우 직접 관람률 75.3%, 평균 관람횟수 5.4회로 농어촌 주민이 대도시 주민에 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프로그램별 직접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향후 1년 이내에 농어촌 주민 중 74.0%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 의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영화(61.9%)’의 관람 의향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2-4.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 및 관람횟수
(단위: %, 회)



- 농어촌 주민과 대도시 주민의 문화예술 직접 관람 선택기준으로 ‘내용 및 수준(농어촌 주민 38.2% vs 대도시 주민 38.5%)’, ‘비용의 적절성(농어촌 주민 18.0% vs 대도시 주민 29.7%)’, ‘접근성(농어촌 주민 18.2% vs 대도시 주민 9.5%)’이 주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에 비해 ‘접근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주민의 관람 시 애로사항으로 도시민과 달리 ‘근처에 시설 없음 (18.2%)’, ‘교통(10.8%)’을 꼽은 비중이 큼.
- 한편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경험은 4.0%로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1년간 참여의향도 5.1%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관광활동

- 지난 1년간 국내나 국외의 여행경험이 있다고 밝힌 농어촌 주민은 45.0%로 나타났으며, 평균 여행횟수는 년 1.6회로 집계됨. 반면에 향후 1년 이내에 여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5.3%로 높게 나타남.
 - 여행경험층 중 대부분은 국내여행(80.7%)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여행참여에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 ‘높은 비용(37.2%)’, ‘시간 부족(36.2%)’이 나타남.

■ 스포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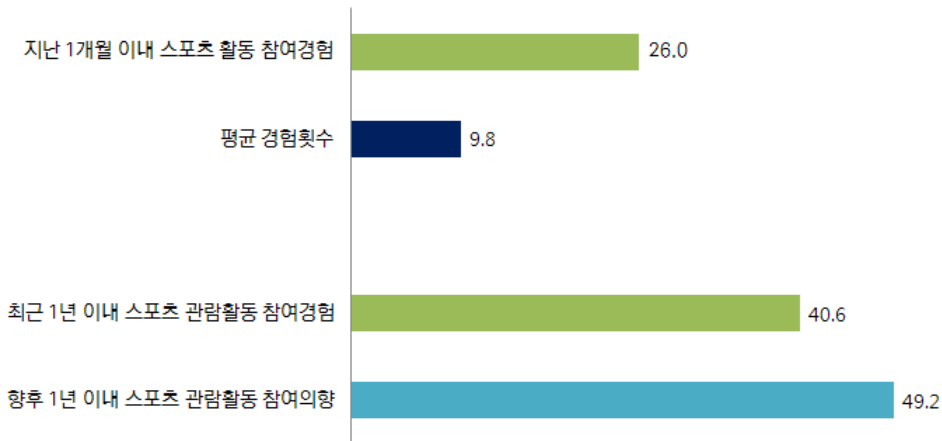
- 지난 1개월간 30분 이상의 스포츠 활동경험이 있는 농어촌 주민은 26.0%로 나타났으며, 평균 경험횟수는 9.8회로 나타남.
 - 주요 활동으로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수영(9.9%)’, ‘요가(9.5%)’, ‘골프(8.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스포츠 참여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로 ‘체육활동 시간부족(56.5%)’, ‘체

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56.0%)’,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26.5%)’ 이 나타남.

- 대도시 주민과 비교 결과 농어촌 주민은 ‘접근성’을 더 주요한 이유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농어촌 주민 26.5% vs 대도시 주민 18.8%)
- 최근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40.6%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람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비율은 49.2%로 나타남.
-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에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 ‘시간부족(36.3%)’, ‘교통 불편(25.8%)’가 주로 나타남.

그림 2-5. 스포츠 참여 및 관람활동 경험현황

(단위: %, 회)



3.2.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종합분석

■ 농어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2,520개이며 단위면적 100km² 내에 2.5개가 위치함.
 - 단위면적(100km²)당 도시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농어촌 지역(군)의 수보다 1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이 취약함. (도시 1,184개, 17.8개/100km² vs 군 593개, 1.1개/100km²)
- 문화기반시설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가 930개로 가장 많음. ‘문화의집’은 116개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냄.
- 단위면적(100km²)당 각 시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도시 9.0개/100km² vs 군 0.3개/100km², 3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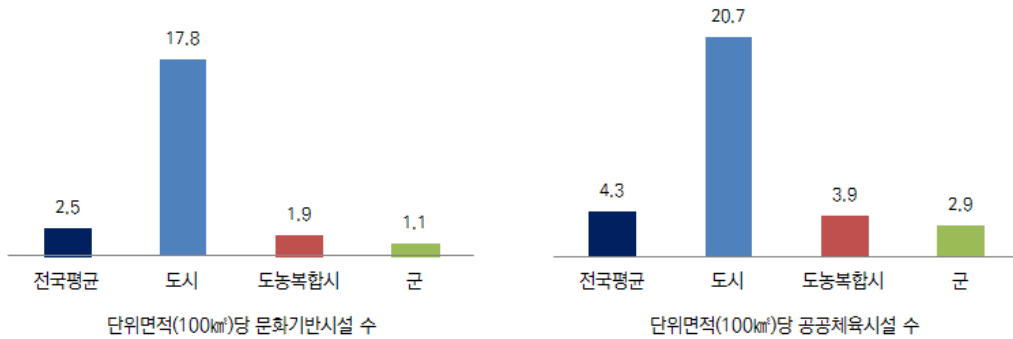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분포현황

-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의 수는 4,358개이며 단위면적 100km² 내에 4.3개가 위치함.
 - 단위면적(100km²)당 도시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농어촌 지역의 수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취약함. (도시 1,211개, 20.7개/100km² vs 군 1,644개, 2.9개/100km²)
- 공공체육시설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국의 ‘게이트볼장’ 수가 1,090개로 가장 많음. ‘야구장’은 169개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냄.

- 단위면적(100km²)당 각 시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수영장’ 수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 3.4개 vs 농어촌 0.1개)
- 한편 단위면적(100km²)당 ‘게이트볼장’의 수는 도시 1.2개와 농어촌 1.1개로 비슷한 값을 나타냄.

그림 2-6. 단위면적 100km²당 문화시설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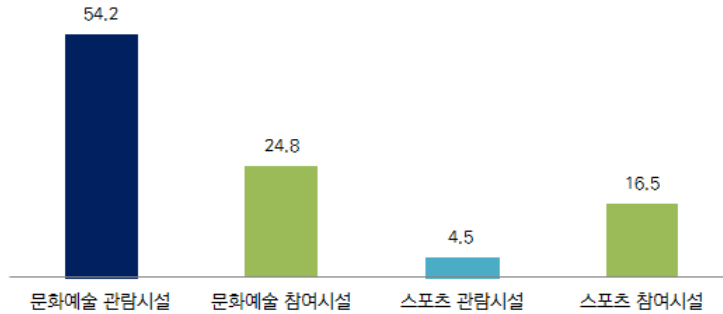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시설인식 현황

-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은 ‘문화예술 관람시설(54.2%)’이며, 가장 적게 이용하는 시설은 ‘스포츠 관람시설(4.5%)’임. 개별 이용시설 에서는 ‘영화관(34.8%)’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용시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포츠 참여시설’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스포츠 참여시설(19.9%)’, ‘스포츠 관람시설(5.9%)’을 더 자주 이용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시설(57.7%)’, ‘문화예술 참여시설(36.6%)’을 더 자주 이용함.

그림 2-7. 문화향유시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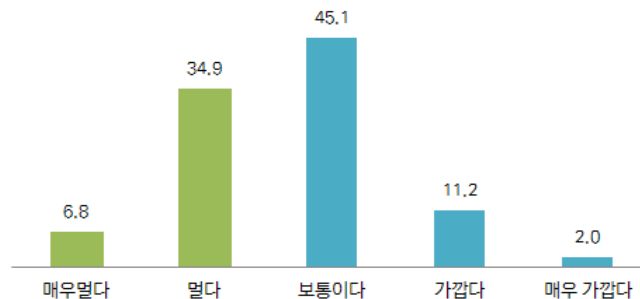
(단위: %)



- 문화향유시설 이동에 있어 주로 ‘자가용(74.8%)’를 이용하며, 평균소요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이내(27.9%)’ 이 가장 많음.
 -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소요시간이 타 지역 거주민의 소요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
- 문화향유시설의 접근성 체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 ‘멀다(34.9%)’, ‘매우 멀다(6.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향유 접근성을 타 지역 거주민에 비해 더 멀게 인식함.

그림 2-8.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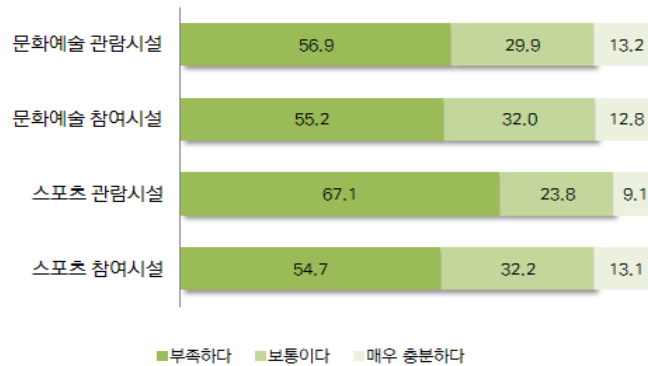
(단위: %)



- 문화향유시설 수의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이 5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스포츠 관람시설’의 수를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여시설’의 응답비율은 5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9. 문화향유시설 수 인식도

(단위: %)



- 문화향유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주요한 어려움으로는 ‘시간부족(35.6%)’, ‘교통 불편(12.7%)’임.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설부족(12.3%)’와 ‘교통 불편(18.5%)’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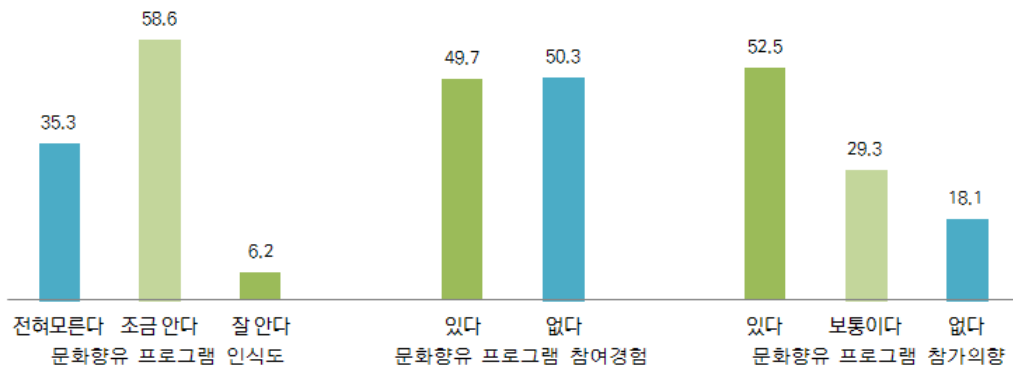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현황

-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조금 안다’ 58.6% + ‘잘 안다’ 6.2%)로 나타남.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9.7%, 평균 경험횟수는 3.7회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82.6%가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6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프로그램 참가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인 반면, 참가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로서 프로그램 참가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참가의향이 있는 비율, 66.7%)’이 ‘남성(49.5%)’에 비해 참가의향이 더 높음.
- 주로 참가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은 ‘작은 영화관(28.1%)’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함(30.5%)’, ‘매우 만족함(4.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부족(35.0%)’으로 나타남.

그림 2-10.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인식도

(단위: %)



3.3.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시사점

■ 문화향유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실현 의지 제고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 참여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참여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향유활동이 삶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에 농어촌 지역의 단위면적 내 문화향유시설의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어촌 주민은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체감도를 멀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교통 불편’, ‘근처에 시설 없음’이 나타남.
-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 참여에 있어 주요 제약요인인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여 문화향유활동에 대한 욕구를 구체화 하고 실현 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 주민에 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접 관람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관람 의향률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영화관람’ 수요가 높음.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욕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화관람’ 장려를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각 문화향유시설 이용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향유하고 선호하는 문화향유활동이 다름. 따라서 문화향유 시설 입지에 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고 각 성별에 맞는 맞춤형 문화향유 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중요

- 문화향유 프로그램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향후 참가의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즉,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높지만 정보접근성 제약으로 인하여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며 실제 효과 역시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참여촉진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제 3 장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정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을 분류함.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별 현황, 효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함.
- 각 정책별 국내 우수사례 및 농어촌 문화향유 관련 해외사례를 제시함.

1.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유형과 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문화·여가 정책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함.
 - 5개년 기본계획 및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각 정책의 추진 흐름을 분석함.

-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의 각 범주별 해당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특성을 분석함.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이외에 각 정책범주 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분석함.
- 각 정책과제 주요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사업 주요내용, 지원 대상, 근거법, 사업비 및 지원방식, 주요성과, 주요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반적 사업내용을 서술함.
- 주요 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1.1.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흐름

■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흐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1차, 2차, 3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2014년, 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사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분석함.
- 기본계획(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의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사업’, ‘문화향유 기회확대사업’,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음. 각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사업’: 문화향유에 필요한 시설(도서관, 체육센터, 박물관, 영화관, 문예회관 등) 및 무형 자산(컨설팅, 네트워크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 * 주요사업: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 ‘문화향유 기회확대사업’: 문화향유 프로그램(공연,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지원(바우처 등)을 확대하는 사업임.
 - * 주요사업: ‘찾아가는 문화시설 사업’, ‘문화누리카드’, ‘문화순회사업’ 등
 -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예술 강사, 기타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 주요사업: ‘예술 꽃 씨앗학교’, ‘학교예술 강사지원’, ‘문화이모작’ 등
 -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사업’: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문화를 생성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 주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동호회 활성화’ 등
- 1차 계획이 주로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2차 계획은 인프라 구축사업과 더불어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 및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함.
- 3차 계획은 기존의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 사업’, ‘문화향유 기회확대사업’,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과 더불어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사업’이 확대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농어촌 문화향유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나타남.
- 2014년에서 2015년에 실시한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영역별 사업이 골고루 추진됨. 특히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이 중심으로 추진된 점을 알 수 있음.

표 3-1. 농어촌 문화향유 진흥 정책

구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추진계획 (2014-2015)
	1차기본계획 (‘05~‘09)	2차기본계획 (‘10~‘14)	3차기본계획 (‘15~‘19)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건립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지역특성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작은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건립	생활체육 공간조성	공공체육시설 조성	경로당 운동용품보급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조성 조성	작은 도서관	실버스포츠 종목보급
	폐가 및 폐가활용 사업(테마과학관, 사이언스샵)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산림박물관 건립	과학관 건립지원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문화누리카드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문화시설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운동회
		문화 나눔 사업	실버문화대축제	찾아가는 체육관
		지방문화원 지원	문예회관을 통한 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순회	전국 문화시설 활용한 예술 감상 프로그램 실시
		향토문화 축제 지원	찾아가는 문화시설 사업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		문화예술 전문 인력 파견	예술 꽃 씨앗학교	예술체험 원정대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원	복지관 및 복지시설 예술 강좌 지원 사업
		예술 꽃 씨앗학교	문화 활동가 양성교육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학교예술 강사지원	학교예술 강사지원	문화자원봉사자 지원 및 봉사단 구성

구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추진계획 (2014-2015)
	1차기본계획 (‘05~‘09)	2차기본계획 (‘10~‘14)	3차기본계획 (‘15~‘19)	
			문화이모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 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행복한 우리 마을 문예인 프로젝트
				폐교와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공공문화시설의 생활문화 기능 강화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	
		주민주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1.2. 인프라 구축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1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 사업임. 이후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까지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특히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체육시설 조성’, ‘문화 공간 및 시설 조성사업’은 1차 기본계획부터 3차 기본계획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됨. 2차 기본계획부터 소규모 문화시설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1차 계획이 시설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은 시설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연계하여 시행함.

표 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지역특성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유희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생활체육 및 복합체육시설 지원	공공체육시설조성
폐가 및 폐가활용 사업 (테마과학관, 사이언스샵)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 조성(정미소, 폐교 등)	작은 도서관
산림박물관 건립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과학관 건립지원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2014-2015)

-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소외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문화시설인 ‘작은 체육관’과 ‘작은 미술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900여 개소의 ‘작은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임.
 - 2015년 선정된 ‘작은 미술관’ 6개소 중 2곳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함¹⁰.
-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노인들의 체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용품 보급 및 실버스포츠 종목보급 사업’을 실시함.
-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을 실시함.

표 3-3.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2014-2015)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 사업 리스트
작은 체육관
작은 미술관
경로당 운동용품 보급
실버스포츠 종목보급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주요 사업 세부적 검토

■ 농어촌 체육 공간 지원 사업

- 국민의 생활반경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이 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함.
-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중임.
-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함.
 - 본 계획의 목표는 2022년까지 1,124개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며, 특히 마을(도보 10분 이내), 읍·면·동(차량 10분 이내), 시·군·구(차량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하는 것임.
- 한편 체육시설 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예산확대 및 민간 체육시설과 중복되는 시설 양산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¹¹. 또한 농어촌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운영주체 설립,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등이 요구됨¹².

11 Joyfit 뉴스 2013.01.04일자 기사 http://www.joyfit.co.kr/news_view.asp?news_no=1693&ncate=01

12 박남환(2013). 「경북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방안」, 대구 경북연구원

표 3-4.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사업

사업 명	체육 공간 조성사업
사업목적	• 공공체육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주요 내용	• 농어촌 지역에 운동장, 체육관, 기존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기반 및 생활체육활동 공간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8개 도 읍·면 지역
근거 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35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4년 기준 약 1,568억, 2015년 기준 1,536억
주요성과	• 2014년 기준 농어촌 지역에 운동장, 체육관, 기존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 시설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기반 및 생활체육활동 공간 설치사업으로 110개소지원
주요계획	• 2015년 에는 105개소 지원계획, 2019년 까지 매년 약 110개소 지원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별 시행계획

그림 3-1. 공공체육시설



장수군 장수초등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순창군 공공체육시설_순창공설 다목적 구장

자료: 스포츠조선 http://foto.sports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sports/201001/20100122/a1v08011.htm 남원순창 인터넷 뉴스 보도자료 http://www.nsinews.net/Gosung/contents/cat2_6_00/18572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 정부는 2004년부터 주민 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관련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 2012년도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이 점차 확대되었지만 농어촌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 2014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공립+사립)’ 수는 전체 5,234개로 나타남. 그 중 도시지역의 ‘작은 도서관’ 수는 4,682개, 농어촌 지역의 ‘작은 도서관’ 수는 552개로 나타남.
 - 단위면적 100km²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작은 도서관’ 수를 확인한 결과 도시지역은 10.3개, 농어촌 지역은 1.0개로 도시지역의 수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작은 도서관 수

(단위: 개)

구분	작은 도서관 수			
	공립	사립	전체	면적 100km ² 내 개수
도시	1,159	3,523	4,682	10.3
농어촌(군)	143	409	552	1.0
전체합계	1,302	3,932	5,234	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작은 도서관 문화실태조사

- 2014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직원 수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함. 또한 도서관 운영기준의 모호함, 전문 인력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남.
- 일부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작은 도서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함¹³.

표 3-6.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사업 명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사업목적	•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문고의 리 모델링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지식 정보접근성 보장 및 문화향수 기회확대
사업주요 내용	• 서가열람 공간 및 모임 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 공간조성 및 자료, PC, 프린터 등 적정 소요물자 구입 경비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	• 도서관법 제27조(설치등) •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4년 약18억, 2015년 10억, 국고50%지원 (재정자립도 30.0% 미만은 70.0%지원)
주요성과	• 매년 10개관(1개관 당 1억원 내외) 지원
주요계획	• 2018년 까지 매년 10개소 내외 건립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별 시행계획

13 교차로 닷컴 뉴스 2012.7.16일자 기사 <http://focus.sgkyocharo.com/board/contentsView.php?idx=644166>

■ 작은 도서관 사례: 완주 ‘기찻길 작은 도서관’

-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 배경 및 목적: 완주군 상관면 내 도서관 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도서관을 통한 교류 확대, 프로그램 참여, 주민 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지역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퀵트, 독서토론, 한지공예, 독서 힐링, 내킨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문화단체, 홈페이지, 코바늘공예동아리, 시네마스쿨 등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률 높임. 분기별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 및 운영함¹⁴.
 - 주민참여 주도의 재능프로그램을 실시함
 ‘책사랑’ 주부독서회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퇴직교수·교사·공예강사 등 인적자원을 문화프로그램 재능기부자로 활용함¹⁵. 지역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 간의 문화적·정서적 교감을 높임.
 -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
 독서회원 개개인 문자홍보, 아파트 게시판 및 각종 공지판 홍보, 언론기관 홍보를 실시하여 도서관 인지도를 높임¹⁶.



상관면 기찻길 작은 도서관 입구



상관면 기찻길 작은 도서관 학부모 행사

자료: 다정다감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62721>

14 완주전주신문 2015년 8월 21일자 기사 <http://www.wjgm.co.kr/>

15 다정다감 정책브리핑 2013년 7월 4일자 기사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62721>

16 ‘기찻길 작은 도서관’ 내부자료

■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 ‘작은 영화관’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처음 시작함. 낮은 관람료와 최신시설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음.
- 작은 영화관의 건립 필요성을 절감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국고 예산 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향후 작은 영화관 수가 확대될 예정임.
- 2015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6개의 ‘작은 영화관’이 운영 중이며 이중 15곳이 농어촌에 위치함¹⁷.
 - 연도별 개관 수를 살펴보면 2010년 1곳, 2013년 2곳, 2014년 6곳, 2015년 7곳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반면 전라북도 지역에 9곳, 강원도 지역에 3곳 등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전국 지자체(군) 82곳에서 영화관이 없는 군은 64곳으로 78.0%를 차지함¹⁸.
- 한편 ‘작은 영화관’의 평일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 관람객 수 차이가 극심하며 상당수의 ‘작은 영화관’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작은 영화관이 존재함¹⁹.

17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18 문화체육관광부(2012). 『영화문화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를 취합하여 계산함

19 남해신문 기사 2014.11.21일자 기사 <http://www.namhae.tv/news/articleView.html?idxno=24944>

-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작은 영화관’의 경우 최소 관람인원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인구연령이 높아질수록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또한 고령층은 영화관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영화보다는 국내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각 인구연령에 적합한 영화편성 및 한글더빙을 통한 영화 이해도 증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 대형배급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함. 대형배급사의 경우 관람료의 50%를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관람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작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한 기술정비, 판매 등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²⁰.
- 이 외에도 ‘작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영화관 운영의 민간위탁과 공공성 훼손, 관련 법조항 부재 등이 존재함^{21,22}.

20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내부자료

21 아시아경제 기사 2013.11.21일자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2007371386896>

22 전북도민일보 기사 2014.1.21일자 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932>

표 3-7. 작은 영화관 사업

사업 명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사업목적	• 전국 동시개봉 영화 관람이 가능한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사업주요 내용	• 최신시설을 갖춘 소규모(100석 내외) 영화상영관 건립지원
지원 대상	•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
근거 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4년 76억, 2015년 76억 소요
주요성과	• 14년 9개 개소, 38억원 지원, 6개소 개관 - 인천(강화), 강원(삼척, 철원, 평창), 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전남(장흥, 고흥)
주요계획	• 2015년 작은 영화관 건립9개소, 38억원 지원 - 강원(정선), 충북(영동), 울산(울주), 경북(영양, 고령), 경남(사천, 합천), 전남(해남, 광양) • 2015년 작은 영화관 개관 계획: 13개소(연중) • 2016년 20개소, 2017년 25개소, 2018년 29개소 개관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별 시행계획

■ 작은 영화관 사례: ‘강화군 작은 영화관’

- 위치: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19번길 12, 강화문예회관 2층, 3층
- 배경 및 목적: 1989년 중앙극장이 폐관된 이후 강화군민들은 26년 동안 영화감상을 위해 서울이나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음. 따라서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영화관을 건립함. 개관 이후 6개월 누적 관람객 수 3만 7천여 명으로 강화군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관에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석점유율은 80%에 육박함²³.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영화를 상영함
소규모 영화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영화편성과 우수한 시설이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영화 관람객이 늘어남. 특히 가까운 거리 내에서 동시상영작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만족요인임.
 - 편리한 예매 기능을 제공함
독립적인 예매 홈페이지 운영 및 스마트폰 예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함.
 -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함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통한 무료상영 제공 및 봄, 가을 관광주관의 관람요금 할인을 실시함. 강화 작은 영화관 전용 관람 상품권을 제작하여 선물용으로 판매함²⁴.



강화군 작은 영화관 전경



강화군 작은 영화관 내부

자료: 국민일보 보도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735708>

23 아시아 뉴스통신 2015년 8월 18일자 기사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876286&thread=09r02>

24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내부자료

1.3.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사업

-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차 기본계획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함.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바우처 사업’, ‘축제 지원 사업’임.
-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과 ‘문화 바우처(누리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활동의 거점인 지방문화원과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행함.

표 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문화나눔사업(바우처, 사랑티켓)	실버문화대축제
	지방문화원 지원(역사문화유적탐방, 체험프로그램, 다문화 활동지원등)	문예회관을 통한 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순회
	향토문화 관광축제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 확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2014-2015)

- 농어촌을 포함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나 공연을 직접 지원함.
 -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문학,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작은 운동회 사업’, ‘찾아가는 체육관 사업(2015년 40회 목표)’은 농어촌 체육문화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임.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시설·장비를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임.(2013년 80회 → 2014년 120회)
- 생활 속 문화감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 감상 프로그램’을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으로는 ‘농어촌 순회 문화공연사업’, ‘작은 문화교실 지원 사업’이 있음.

표 3-9.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사업(2014-2015)

문화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농어촌 순회 문화공연
작은 운동회	작은 문화교실 지원사업
찾아가는 체육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전국 문화시설 활용한 예술 감상 프로그램 실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주요 사업 세부적 검토

■ 문화누리 카드사업

-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카드의 지원범위는 영화·공연·전시·관람·숙박·여행·국내 4대 스포츠 관람 등이며 해당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2014년 사업초기에 제기된 선착순 신청에 따른 신청시스템 과부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온·오프라인 순차개시를 통한 발급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²⁵.
- ‘문화누리카드’의 저조한 이용률 및 도서관과 영화에 편중되어 있는 카드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기됨. 특히 농어촌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화생활 기반 조성이 빈약하여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26,27}.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문화향유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지난 1년간 문화누리 카드 이용률은 1.1%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80.6%로 높게 나타남.

25 동아뉴스 2015.2.4일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50204/69478207/1>

26 전자신문 2014.8.24일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4082400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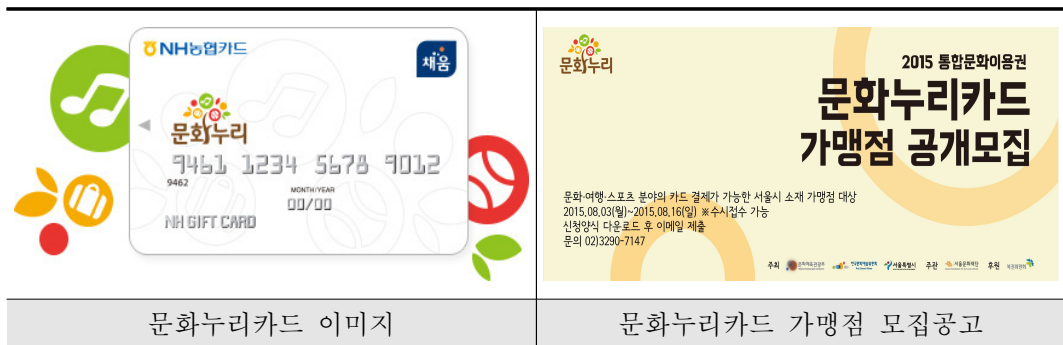
27 서산시대 2015.4.3일자 기사 <http://www.ss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7>

표 3-10. 문화누리카드사업

사업 명	문화누리카드사업
사업목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해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발급(개인별)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근거 법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4년 약730억, 2015년 약 820억
주요성과	• 2014년 문화 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 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기여
주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고령층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카드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가맹점범위 확대 및 관광·스포츠 관람분야 이용 상품 개발, 이용처 발굴강화 • 시외버스, 관광음식점 등 일부항목 추가검토(가맹점관리위원회) - 카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기획 사업을 보완적으로 추진 • 카드수혜자 확대를 위해 카드사업 우선 추진 후, 지역별 발급률 및 농어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 사업을 보완추진 •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급 및 이용기간 조정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 년 150만 명 이상 지원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2.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공고

자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unhwanuricard.kr/main/main.do>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html/opensquare/notice.asp?flag=READ&Seq=31486>

■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융성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함.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가격 할인과 기업 조기퇴근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함임.
- ‘문화가 있는 날’ 실시 이후 참여시설 및 단체의 증가, 영화 및 콘서트 등의 문화예술 관객 수 증가, 예술 공연 단체의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남. 하지만 여전히 민간 참여율이 저조하며 직장인의 조기퇴근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²⁸.
- 2014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공연프로그램을 지원한 농어촌 지역의 문예회관의 수는 43개, 도시지역의 문예회관 수는 68개로 나타남.

표 3-11.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 회, 명, (%))

구분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			문예회관 수
	지원 문예회관 수 (지원 비율 %)	프로그램 횟수 (회)	관람인원(명)	
도시	68(42.8%)	160	26,290	159
농어촌(군)	43(58.9%)	90	7,719	73
전체합계	111(47.8%)	250	34,009	232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4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

28 아시아경제 2015.9.11일자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107585311301>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문예회관 수 대비 지원 문예회관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지원 비율은 58.9%, 도시 지역의 지원 비율은 42.8%로 나타남. 농어촌 지역의 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프로그램 횟수 및 관람인원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횟수 도시 160회 vs 농어촌 90회, 관람인원 도시 26,290명 vs 농어촌 7,719명)
-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의 주요 프로그램이 영화, 공연, 스포츠 등으로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3월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²⁹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민간 공연단체의 참여저조(30.2%)’가 나타남. 그 외에 ‘홍보 미흡(16.3%)’, ‘수요일 고정 날짜(15.1%)’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됨.
-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효과점수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나타났으며, 3년 뒤에 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32.6%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표 3-12.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명	문화가 있는 날
사업목적	•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공동이용시설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실질적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원 대상	• 일반국민

사업 명	문화가 있는 날
근거 법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 2014년 90억, 2015년 90억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공연·전시·스포츠·문화제 등 전국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가능, - 문화퇴근일 : 충분한 문화시간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정시 또는 조기 퇴근 • 학교·농촌·야영장·가정지원센터 등 국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문화사업 : 학교(중학교) 60곳, 농촌 5곳, 건강가정지원센터 1곳 • 지속적인 홍보와 민간시설과 기업의 참여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19.0%(1월)→34.9%(11월)/ 참여도: 10.0%(11월)/만족도: 71.0%(11월)
주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대표사업 추진 • 다중집합장소 활용, 생활 속 문화예술 점점 확대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지원 • 지역 문화시설 연계, 주민밀착형 기획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의 수를 2018년 까지 매년 2,000개소 이상으로 계획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3. 문화가 있는 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web/s_data/deptData/deptDataView.jsp?pSeq=199
공식 블로그 <http://culturenori.tistory.com/3343>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의 문화 나눔 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문예회관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
- 지원내용은 민간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 등임.
- 2014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방곡곡 프로그램에 지원한 농어촌 지역의 문예회관 수가 53개, 도시지역의 문예회관 수가 109개로 나타남.
 -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문예회관 수 대비 지원 문예회관 수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의 지원 비율이 72.6%로 도시지역의 지원 비율 68.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프로그램 횟수와 관람인원의 경우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프로그램 횟수 도시 492회 vs 농어촌 181회, 관람인원 도시 295,143명 vs 농어촌 83,581명)

표 3-13.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 회, 명, (%))

구분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문예회관 수
	지원 문예회관 수 (지원 비율, %)	프로그램 횟수 (회)	관람인원(명)	
도시	109(68.5%)	492	295,143	159
농어촌(군)	53(72.6%)	181	83,581	73
전체합계	162(69.8%)	673	378,724	232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4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

- 2014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문예회관의 주요 이슈 사항은 전문 인력 부족, 소외계층 지원용 버스부족, 소극장용 공연 부족, 자체예산 부족, 통합 홍보물 부족 등임.
- 공연단체의 이슈사항으로는 공연일정 조율의 어려움, 지역기반공연단체에 대한 추가지원 및 활성화 요청, 사업진행 절차의 복잡성, 사전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예회관의 무대준비 어려움 등임.

표 3-14.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

사업 명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전국 방방곡곡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 해소로 문화 복지 정책 실현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문예회관을 활용,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원 대상	• 전국의 지방 문예회관 (서울지역 문예회관제외)
근거 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제16조, 제 18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민간 경상보조, 2014년 약80억, 2015년 약80억 지원
주요성과	• 2014년 351개 기관 (335개 작품), 597건(923회) 프로그램 실시, 41,233명 수혜 - '14년 수혜자 종합만족도는 84.5점으로 목표대비 100.2% 달성(목표 84.3점 → 실적 84.5점)
주요계획	• 민간 및 지역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기회제공 등을 위한 민간 우수공연 프로그램지원 확대 • 지방문예회관의 기획·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에 집중지원 • 재정이 열악한 비활성화 문예회관의 활성화 및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사례: '충청남도 예산군 문예회관'

-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예산군 문예회관
- 배경 및 목적: 대관 위주의 문예회관 운영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복권위원회의 문화 복지 사업에 참여함. 특히 방방곡곡 문화 공감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과 여러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예산군 문예회관의 문화기능을 강화함. 2014년 기준 총 3회의 공연(민간 예술단체 공연 2회, 국립예술단체 공연 1회)을 실시하였고, 지원 금액은 82,188,000원임. (자부담액 27,432,000원, 총액 109,620,000원)³⁰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좌석점유율을 높임: Korean Heart Beat Dood Rock(448명, 88.7%), 뮤지컬 완득이(397명, 78.6%), 국립창극단 배비장전(515명, 102.0%), 전체(1,360명, 평균 좌석 점유율 89.8%)
 - 전체 관람객 중 일정 부분을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지원함: 창극 '배비장전' 공연 전체관람객의 25.0%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관람으로 배정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연



배비장전 공연 포스터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caca.or.kr/Pages/Community/PhotoBoard/PhotoBoard.aspx>
 충남일보 보도자료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396>

3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4).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전국의 농어촌 지역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버스로 제작된 이동식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문화소외지역에 전시함. 본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임.
-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중앙 도서관,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기관들이 직접 참여함.
- 문화버스 전시 이외에도 각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독려함.

표 3-15.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사업 명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목적	(도서관)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박물관) 문화향유 소외지역 방문 박물관교육 문화 나눔 확대 (미술관) 전국으로 예술가가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활동을 통한 생활 속 미술문화 확산
사업 주요내용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문화재 전시 및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전국 초등학교에 예술인 강사가 방문하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실행
지원 대상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농산어촌 초등학교 등 정보취약 계층 어린이 (박물관) 농산어촌 지역 소재 초등(특수)학교, 복지시설(다문화), 문화기관 등 (미술관) 전국 상대적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등
근거 법	(도서관) 도서관법제19조 및 제43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0조 (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사업비 및 지원방식	(도서관) 2014년 약 7억,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억6천만 원 지원 (박물관) 2014년 약 7천만 원, 2015년 약 6천만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천만 원 지원 (미술관) 2014년 약 6천만 원,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매년 9천만 원 지원

사업 명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요성과	(도서관) - 135개 운영도서관 및 참여기관(지역아동센터 등) 선정 - 독서프로그램 운영(4,320회) 및 워크숍 개최(4회) - 프로그램 활용도서 지원(43,174책) (박물관) - 2014년 29개소, 약 9,240명 지원 -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22), 특수학교(2), 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문화기관(3) 지원 (미술관) - 2013년, 10개 지역, 15개교, 1,332명 - 2014년, 7개 지역, 15개교, 1,098명
주요계획	(도서관) 운영횟수 기준 2015년 100회, 2016년 105회 등 매년 5회씩 증가 2019년 120회 목표 (박물관) 운영횟수 기준 2015년 22회, 2016년, 2017년 25회, 2018년, 2019년 30회 목표 (미술관) 운영횟수 기준 2019년 까지 매년 18회 목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4. 찾아가는 문화시설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

찾아가는 미술관 버스

자료: 정책공감 정부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2Ex&articalno=6977763&categoryId

■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함.
- 2004년부터 2013년 까지 1,890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지원되었고, 수혜 인원은 약 473만 명으로 추산됨. 2013년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그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수요처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선호도에 따라 예술단체를 차등 지원함.
- 2013, 2014년 기준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의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지원 비율이 30.5%로 도시지역의 지원 비율 69.5%보다 낮게 나타남. (군부대, 교정시설 지원프로그램 제외)

표 3-16.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회, (%))

구분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2013년(비중 %)	2014년(비중, %)
도시	1,301(69.5%)	1,245(70.9%)
농어촌(군)	571(30.5%)	512(29.1%)
전체합계	1,872	1,757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표 3-17.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명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목적	•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과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노령층, 저소득층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
사업 주요내용	• 소외지역에 방문하여 문학,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지원
지원 대상	• 전국각지의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군부대, 교정시설
근거 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 기금의 배분 및 용도)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2년 93억, 2013년 95억, 2014년 100억원 (지속적 사업 확대) • 총예산의 100.0%를 기금에서 지원(전액 지원 사업) • 1회당 기준은 450만원 내외로 하되,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주요성과	• 2014년 수혜자 58만 명, 지원 대상 1,996개소
주요계획	• 2015년 65만 명 지원계획, 지원 대상 2,200개소

자료: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 <http://www.artstour.or.kr/home/main.asp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3-5.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

신나는 예술여행 이희문 컴퍼니 공연

자료: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 <http://www.artstour.or.kr/Home/Community/PerfComment.aspx>

1.4.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사업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은 제 2차 기본계획부터 실시함.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거나 전문 인력 및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함.
- 3차 기본계획 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점차 확대함. 또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양성사업을 실시함.

표 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문화예술 전문 인력 파견	예술 꽃 씨앗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예술 꽃 씨앗학교	문화 활동가 양성교육
학교예술 강사지원	학교예술 강사지원
	문화이모작
	어르신 문화학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2014-2015)

- 2014년에 시행하거나 2015년에 시행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예술체험 원정대 사업’: 예술 강사들이 장르 융합 형 공연전시 및 체험 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문화자원 봉사자·마을문화 봉사단 구성 및 지원 사업’: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자발적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양성·지원하는 사업임. ‘문화자원 봉사자 지원 사업(2014년 50개소, 100명)’, ‘마을문화 봉사단 구성 및 지원 사업(2014년 40개 읍·면·동)’.
 -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공급하는 사업임.
 - 이 외에 ‘복지시설 예술 강좌 지원 사업’, ‘한국형 엘 시스템아(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폐교 및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있음.

표 3-19.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2014-2015)

전문 인력 파견 및 교육사업 리스트
예술체험 원정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복지관 및 복지시설 예술 강좌 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문화자원봉사자 지원
마을문화 봉사단 구성 및 지원
한국형 엘시스템아_꿈의 오케스트라
행복한 우리 마을 문예인 프로젝트
폐교와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주요 사업 세부적 검토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역 문화의 자생력과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실시함.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함.
- 2015년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북대학교가 지역별 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됨.
- 김홍규·이상열(2014)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함.
 - 지역문화 전문 인력에 의한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위하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함.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안정성을 제고해야함.
 - 지역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증대 및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함.

표 3-20.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 명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적 환경과 여건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 주요내용	• 권역별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지원 대상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 문화원, 기타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근거 법	• 지역문화 진흥법 제10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정액지원(국비100.0%) • 2014년 약 5억, 2015년 약 5억
주요성과	•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지정·지원근거 마련
주요계획	• 2015년 권역별 5개소 지정 및 지원 • 2019년 까지 매년 4개소 지원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6.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2015 서울-제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2015 영남권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자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689847124450307/>

■ 문화이모작 사업

- 문화이모작 사업은 도농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농어촌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 중 세부 사업으로 시행함.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 창작 및 향유 활동을 지원함.
- 교육과정은 문화이모작 리더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문화이모작 매개자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실행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분함.
- 2014년부터 사업지역을 농어촌으로 한정짓지 않고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진행함. 한편 도시지역의 문화이모작 기획 사업을 주도하는 청년층의 사업 방식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존재함.
 - 청년층의 경우 문화이모작 사업을 사유화 한다 던지, 아니면 지역민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탄탄한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사업수행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반면 농어촌의 특성상 농번기나 수확기에는 구성원들의 사업 참여율이 다소 떨어짐.
- 최근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76%가 문화이모작 사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또한 실습과정까지 거친 기획사업자들 중 98%가 향후에도 문화 기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³¹.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표 3-21. 문화이모작

사업 명	문화이모작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고유의 문화·인력 자원을 활용,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문 인력양성 및 문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생력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지역주민, 마을리더, 예비문화 활동가, 귀촌·귀농희망자 등 대상 문화 활동가 및 기획가 양성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마을리더, 예비문화 활동가, 귀촌·귀농희망자 등
근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 진흥법 제29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액지원(국비100.0%) 2014년4억, 2015년3억5천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기초 과정 148명, 집중 과정 87명 수료, 18개 기획 사업 지원
주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권역별 100여명 인력양성 교육, 10개 내외 기획사업 지원, 2019년까지 매년 100여명 인력양성 목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문화이모작 사업 사례: ‘세대공감 문화체험 200% 즐기기’

- 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구미마을회관
- 배경 및 목적: 핵가족화와 더불어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문화교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함. 농어촌 마을 어르신들이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면서 공동체를 구축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명인협의체(새끼꼬기, 매듭짓기, 쑥개떡 만들기 등)를 구성하여 청소년이나 아동,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
 - 문화이모작 사업을 위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함
금산면 마을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여 문화이모작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마을차원 분위기를 조성함. 또한 명인 협의체의 소속감을 증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단체 반팔티를 보급함.
 - 금산면의 홍보대사로 활동함
가족단위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체험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산면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체험활동 이후 문화유적을 둘러보도록 유도함³².



짚신 만들기 체험활동



짚신만들기 체험활동

자료: 전북일보 보도자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35714>
문화이모작 사업 홈페이지 <https://imojak.kr:6013/>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사례집

■ 예술 꽃 씨앗학교

- 2008년부터 전국의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문화예술 교육 운영의지가 높은 곳을 ‘예술 꽃 씨앗학교’로 선정함. 각 학교에서는 공연예술, 음악예술, 시각예술, 통합예술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함.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법 및 커리큘럼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별 특성화 모델구축, 교사 및 학부모를 포함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함.
- 전문 강사 배치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1월 기준 총 47개교의 학교가 지원 중에 있으며 그 중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총 11개교로 전체의 약 23.4%를 차지함³³.
- ‘예술 꽃 씨앗학교’를 포함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점이 나타남³⁴.
 - 질정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비미함.
 - 관련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 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가 부족함.
 - 주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평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34 쿠키뉴스 2015.7.8일자 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629522&code>

표 3-22. 예술 꽃 씨앗학교

사업 명	예술 꽃 씨앗학교
사업목적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 / 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사업 주요내용	• 전교생 1인 1예술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전국 문화소외 지역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근거 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사업비 및 지원방식	• 2014년 35억, 2015년 40억
주요성과	• 2014년도 43개교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지원
주요계획	• 2015년도 총 47개교(초등41개교, 중·고등6개교시범) 지원목표 • 2016년 47개교, 2017년 50개교 등 매년 지원학교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7. 예술 꽃 씨앗학교



예술 꽃 씨앗학교 공연

예술 꽃 씨앗학교 활동

자료: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artnetworking.org/96>

■ 예술 꽃 씨앗학교 사례: ‘거제시 창호 초등학교’

-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761
- 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한 시골학교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감성을 키우고자 함. 또한 교육소의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개발하고,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예술꽃 씨앗학교를 시행함. 2012년 예술 꽃 씨앗학교 시행 이후 전입생이 증가하여 폐교위기를 모면하였고 선후배간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학교폭력도 사라짐.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함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시골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케스트라가 아닌 이동성이 용이한 악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함.
 - 지역 문화소의 지역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시행함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악기연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소외지역 나눔 공연을 실시함. 특히 학생들과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적인 곡을 선곡함.
 -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예술꽃 씨앗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³⁵. 목관 악기로 구성된 전교생 동아리 “꿈소리 앙상블”, 교직원 동아리 “파도소리”, 학부모 동아리 “예꽃소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체험활동 운영함.
 - 지역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수행함
 예술꽃 씨앗학교 발표회 및 지역행사 참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함³⁶.

35 창호초등학교 내부자료

36 창호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changho-p.gne.go.kr/index.jsp?SCODE=S0000000495&mnu=M001015001001>

그림 3-8. 예술꽃 씨앗학교(창호초등학교)



창호초등학교 꿈소리 앙상블 길거리 공연

창호초등학교 합주연습

자료: 창호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changho-p.gne.go.kr/index.jsp?SCODE=S0000000495&mnu=M001>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 2012년 사업시작 이래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있어 중앙주도형 공급방식을 탈피하고 지역 내 광역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생적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함.
- 2013년 기획공모³⁷와 연속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사업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함. 또한 중앙-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 사업 전략 컨설팅 지원, 실무자 간담회,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 등이 진행됨.

37 콘텐츠 개발형(대상 또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기반 조성형(신규단체 발굴, 인규페이팅 사업지원, 경력단체 대상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및 기반 조성), 지역 연계형(기초단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생활권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 활동 지원,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활동 지원 및 비수혜지역 기관 연계 지원)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의 ‘토요문화학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타기관의 사업 내용과 중복성이 발생함.
- 대내외적 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구체적 전략으로 향후 대상의 지속 확대,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자율 제안사업 확대, 추진체계의 유연화 등이 제시됨³⁸.

표 3-2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사업 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및 학습자-커뮤니티의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기회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능력이 있는 단체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운영기반을 조성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지닌 민간 거점단체를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 • 사회적·문화적 환경 및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함.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근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에서 국비 및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함. - 2015 경기도 사업예산 46,800만원, 강원도 사업예산 25,000만원, 전라북도 사업예산 60,000만원 • 기획공모와 일반 공모 분리 지원함, 기획공모: 3,000만원~5,000만원, 일반공모: 3,000만원 이내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부터는 지역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총 337개의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함.
주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일반 공모와 기획공모를 통해 신규 및 계속지원 계획임

자료: 경기문화재단, 201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안내

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전략 수립」

1.5.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사업

-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주도의 자생적 문화 활동 및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제 3차 기본계획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함.
- 주요사업은 농어촌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문화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 ‘문화마을 지정 사업’임.
- 농어촌 지역의 주민주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련시설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마을지원 등의 복합적인 사업내용을 보임.

표 3-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된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 사업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문화시설의 생활문화 기능 강화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 주민주도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2014-2015)

- 2014년에 시행되거나 2015년에 시행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능동적 체험문화 확대사업은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임.
 -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마을의 전통예술문화를 복원·전승하고 이를 통해 마을문화공동체 구축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있어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마을공동 소득창출 및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실시중임.

표 3-25.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능동적 문화체험 확대 사업

문화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마을공동문화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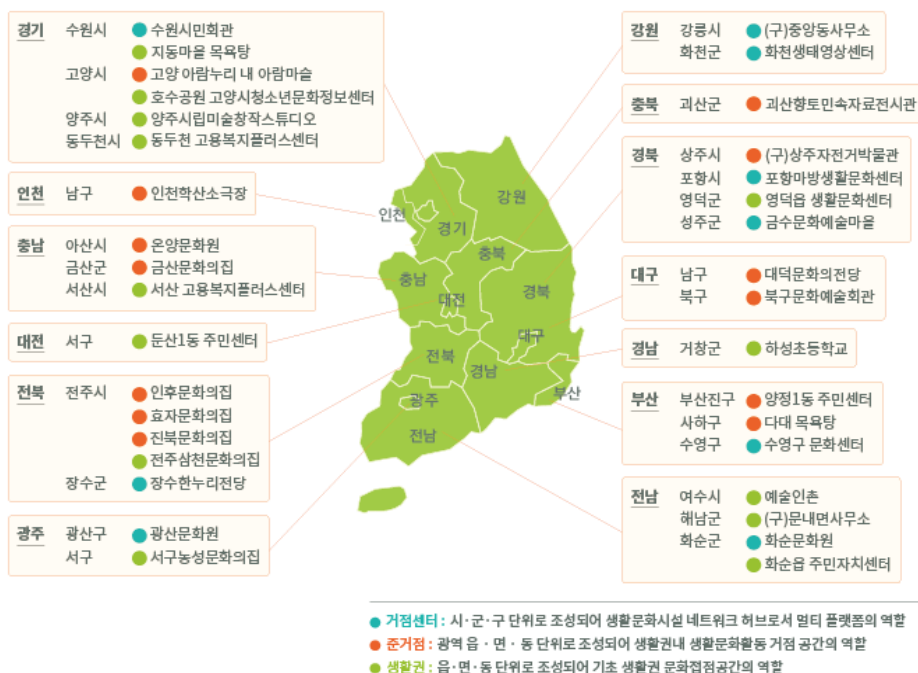
■ 주요 사업 세부적 검토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과 지역문화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의 기존 유희 시설과 문화여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함. 센터조성과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 네트워크 형성, 운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지원함.
- ‘생활문화센터’를 자율적 참여 공간, 지역사회 문화 나눔 공간,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 공간, 기존시설의 재생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생활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함.

- ‘생활문화센터’의 유형구분은 2014년에 생활권형, 준 거점형, 거점형 3가지로 분류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권형과 거점형의 2가지 유형으로 조정함.
- 2014년, 2015년에 지원한 ‘생활문화센터’ 중 농어촌 지역의 지원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0%로 낮은 수준임.
 - 2014년에 지원한 31곳의 생활문화센터 중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는 10곳임. 2015년의 경우 32곳의 지원센터 중 농어촌 지역의 지원센터는 11곳임³⁹.

그림 3-9.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자료: 예술경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main/main.aspx>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재정,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전반적 사후관리가 요구됨. 특히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⁴⁰.

표 3-2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업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업목적	•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희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사업비 및 지원방식	• 지자체자본보조(국비 30.0%, 지방비 70.0%), 2014년 400억, 2015년 450억
주요성과	• 2014년 13개 시·도 35개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주요계획	• 2015년 30개 내외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예정 • 2019년 까지 누적 138개소 지원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10. 생활문화센터



충남 서산군 생활문화센터

전라남도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자료: 뉴스충청인 보도자료 http://cndnews.co.kr/sub_read.html?uid=119350§ion=sc71§ion2=
 해남군민신문 보도자료 <http://m.hnsor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

40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 농어촌 생활문화센터 사례: 일본 ‘가나자와 예술촌’

- 배경 및 목적: 평범한 지방 도시였던 가나자와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창조적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96년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을 구상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폐업한 방적공장 벽돌창고를 음악, 에코라이프, 아트공방과 같은 작업실로 리모델링함. ‘하루 24시, 일 년 365일’ 내내 시민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 최첨단 시설, 저렴한 이용비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율을 증대시키며 지역 전통문화 장인을 배출하기 위해 ‘가나자와 직인대학교’를 운영함.
 - 음악, 미술, 연극공방별로 2명씩 일반인이 코디네이터(디렉터)를 맡아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민디렉터’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 시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의 숲’을 운영하고 지역밀착 및 주민소통의 공간인 ‘21세기 미술관’을 운영함⁴¹.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전경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내의 ‘21세기 미술관’

자료: Art MK 보도자료 <http://www.artmk.kr/artmk/archives/4603>

41 세종의 소리 2014.10.06일자 기사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6>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복권기금의 문화 나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함.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외지역의 자생적 주민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를 문화예술 활동의 ‘대상’이 아닌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임. 각 지역의 공동체 형성정도(공동체 발아단계, 공동체 구축단계, 공동체 발전 및 확산단계)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실시중임.
- 2014년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 총 31개의 마을 중 농어촌 마을은 5개로 나타나 전체의 약 16.1%를 차지함. 2015년의 농어촌 마을 지원비중은 33.0%임⁴².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⁴³.
 - 본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접근보다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2 한국문화원연합회 내부자료

4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표 3-2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목적	•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
근거 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사업비 및 지원방식	• 정액 지원(국비 100.0%), 2014년 12억, 2015년 12억 지원
주요성과	• 2014년 31개 단체 지원(1차년도: 13개/ 2차년도: 8개/ 3차년도: 10개)
주요계획	•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매년 26개 단체지원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11.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기리
생활문화공동체 설명회

경상남도 통영시 능양마을 생활문화공동체

자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블로그 <http://livingcultures.tistory.com/category/?page=7>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 ‘공간이노’

-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마노면 소여리 470-1 소여분교
- 배경 및 목적: 창작활동을 하는 한 부부가 작품 활동을 위해 소여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여분교 내에 예술창작촌 ‘공간이노’를 설립함. 이곳에서 두 부부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그림그리기, 도자기 굽는 법을 교육하고 미술관을 운영해옴. ‘공간이노’는 2011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선정이후, 2015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여리 역사창고 공동체 만들기를 진행 중 임.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전담인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함
농어촌의 경우 문화향유 사업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주도할 인력이 부족함. 또한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행정 처리나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면에서 ‘공간이노’의 경우 두 부부가 전담인력이 되어 행정처리 및 정보습득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남.
 -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생활물품 전시장 운영, 영화상영, 마을안내판 만들기, 마을신문제작, 소여리 마을축제 개최 등을 운영함.
 - 마을주민들과 동화되어 사업을 추진함
전담인력이 마을에 직접 상주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마을주민들이 전담인력을 외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함.



‘공간이노’ 생활문화공동체 미술작업실



‘공간이노’ 생활문화공동체 미술전시관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2: 일본 ‘살롱 드 아만토’

- 배경 및 목적: 2001년부터 오사카 근처의 아만토 마을에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예술 공연 공간인 ‘살롱 드 아만토’를 만들기 시작함. 이를 통해 예술 중심 아만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옴.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아만토 카페, 독립영화 전용극장, 공연장, 바(Bar),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며, 수익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경영을 실천함. 아만토 카페 이외에 다른 시설은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 운영을 실천함.
 - 아만토 마을 근무자 모두가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유효기간이 있는 공동체 화폐를 발행하여 마을내의 자본 순환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아만토 마을이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내의 아이들에게 내부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⁴⁴.



‘아만토 마을’ 내의 ‘아만토 카페’



‘아만토 마을’의 내부거리

자료: 오마이 뉴스 보도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1673

■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3: 독일 ‘Ufa Fabrik 마을’

- 배경 및 목적: 1979년 자급자족의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예술 중심형 마을 ‘우파 파브릭(Ufa Fabrik)’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함. 현재 연간 20-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a 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의 다양한 조직을 결성함.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 내의 사회, 건강, 가정문제를 지원하며 공동체적 삶을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 축제 등을 지원함.
 - 국제교류 및 지역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을 방문한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스트 하우스, 만찬장 등을 운영함.
 -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스태프, 지원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공동체 기술 및 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함. 예술 공동체 뿐 만 아니라 생태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⁴⁵.



‘우파 파브릭’ 마을입구



‘우파 파브릭’ 체험 프로그램

자료: 용인 시민신문 보도자료 <http://m.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4>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2014년 7월 지역문화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체가 고유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 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함.
- 2014년 문화도시 시범대상 사업지로 남원시, 문화마을 시범대상 사업지로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을 선정함.
-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의 사업예산은 최대 9.5억과 3억 원임.
 - 문화도시 사업예산: 연 7.5억 + 2억(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본 사업 인센티브)
 - 문화마을 사업예산: 연 2억 + 1억(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본 사업 인센티브)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업기획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부족과 콘텐츠 기획·개발에 대한 지원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주로 거론됨⁴⁶.

46 한상우(2014). 「정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남도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표 3-28. 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명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 격차 해소
사업 주요내용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마을 육성 지원
지원 대상	•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 안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근거 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사업비 및 지원방식	• 정률 지원(지방비 60.0% 매칭), 2014년 4억
주요성과	• 2014년 4억 지원, 문화마을 2개소 조성 지원(공주시, 부여군)
주요계획	• 2015년 문화마을 13개소 조성 지원(계속 2개소, 신규 11개소) 26억 지원 • 2016년 46억, 2017년 60억, 2018년 56억으로 전반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 • 2019년 까지 50개 문화마을 조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그림 3-12. 문화마을 활동 사례



자료: 뉴스 충청인 보도자료 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93803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8n2r

■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 농어촌 마을이 전통예술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교육, 축제, 컨설팅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각 마을단위의 놀이의 복원 및 전승, 문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 강습, 악기, 발표 등을 지원함.
- 2013년 지원마을 총 70곳 중 농어촌 지역의 마을 수는 40곳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함. 2014년 지원마을 총 75곳 중 농어촌 지역의 마을 수는 33곳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함⁴⁷.

표 3-29.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사업명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사업목적	• 농어촌 마을의 전통예술문화 복원·전승을 통해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를 재인식하고, 자발적 문화 활동을 통한 마을 문화공동체를 구축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읍·면·리·동 단위로 전승되는(또는 현재 맥이 끊어진) 두레풍물 놀이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강사 파견, 악기·소품, 공연 발표 등 지원 • 1년차: 마을 전통 예술문화 발굴 및 교육 • 2년차: 마을 생활문화 발굴 및 마을 전통예술문화와 연계 • 3년차: 마을 문화공동체 구축과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어촌(시·군)소재 마을
사업비 및 지원방식	• 연속사업 : 1개 마을 5,000천원 • 신규사업 : 1개 마을 7,000천원(지역 여건에 따라 마을지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요성과	• 2014년 총 75곳 지원(신규지원 21곳, 연속지원 54곳) • 2013년 총 70곳 지원(신규지원 43곳, 연속지원 27곳)
주요계획	• 2014년 사업종료

자료: 2013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 기본계획

2014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사업 공모안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47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그림 3-13.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자료: 경북매일 보도자료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42>
 전북중앙신문 보도자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158>

2.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추진체계

2.1. 문화향유 정책 추진조직 구성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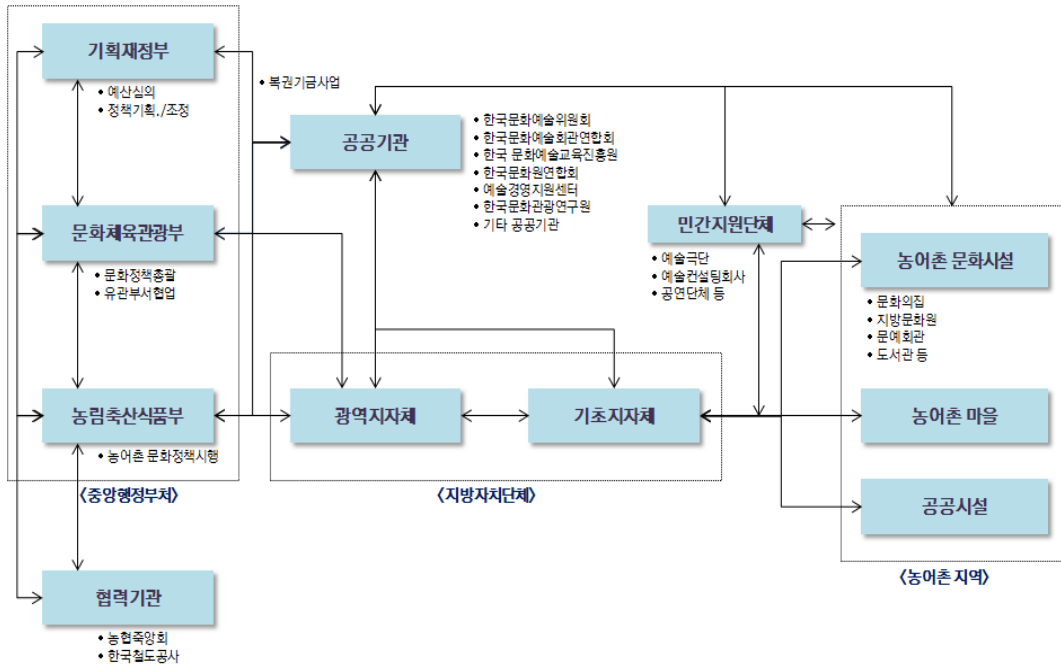
■ 정책 추진조직의 구성

-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추진조직은 구조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를 망라함.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기능은 중앙행정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됨.
 - 문화정책은 복합적인 면을 나타내며 타 부처 역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의의 문화정책 추진조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복권위원회를 통해 복권기금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함.
- 전국 및 지역단위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있음. 또한 정책추진 차원에서 문화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존재함.
- 농어촌 지역의 문화시설(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등)이나 농어촌 마을, 공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체(예술극단, 예술컨설팅 회사, 공연단체 등)가 존재함.

■ 정책 추진체계

그림 3-14. 문화향유 정책 추진체계



2.2. 문화향유 정책 추진조직

■ 중앙행정부처 조직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수립 및 감독하는 행정조직으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을 입안하며 정책추진전략을 수립함.
- 각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임.
- 식량공급 및 품질관리,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 진흥, 농촌개발,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농어촌 문화향유를 진흥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농촌축제지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등을 지원함.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자원 배분 및 예산 성과 평가, 조세정책 시행 등을 통해 국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함.
- 기금사업 활동으로 복권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을 추진함.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며 수자원, 도시, 도로, 주택, 해안, 철도, 항공 등의 사무를 관장함.

- 문화향유 관련 사업으로는 주택건설 공급과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음.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원 등과 같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함.
- 문화향유 관련 사업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적 마을환경 정화사업인 ‘행복 흙씨 입양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

○ 협력기관

- 농협(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 농업인 삶의 질 개선, 금융 사업을 실시하며, 2004년 농협재단(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농촌지역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관련 사업으로는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촌문화 알리기 사업’,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등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철도 영업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의 문화 사업에 협력함.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거나,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한 기차역 중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지역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부처가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독자적인 문화향유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앙부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분장을 보이며 중복적인 모습을 나타냄.
-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경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본부’, ‘문화관광국’ 등의 조직 내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등의 부서가 존재함. 기초지자체 역시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 등이 존재함.
- 기초지자체는 직접 사업시행을 관리하고 광역지자체에 사업 및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관리하고 중앙부처에 사업현황을 보고함. 다만 각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중앙부처의 사업추진구조가 다르게 나타남.
 - * 중앙부처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향유 사업: ‘작은 도서관’, ‘문화누리카드’, ‘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임.

■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5년에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관련사업과 활동을 지원함.
- 농어촌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진흥하기 위해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⁴⁸을 시행함. 추진사업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생활문화공동체’, ‘신나는 예술여행(문화순회사업)’, ‘문화자원봉사’ 등이 있음⁴⁹.

48 현재와 더불어 미래의 창조적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임.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인 지역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추진사업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사랑티켓’, ‘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가 있음.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예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연예술유통 및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함.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됨⁵⁰.
- 관련 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화가 있는 날’,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등을 추진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임.
- 주요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 연구 및 조사, 창의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업무 등이 있음⁵¹.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 꽃 씨앗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추진함.

○ 한국문화원연합회

- 1962년 전국의 78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함.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그리고 공동이익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과 국제교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 법인으로 전환함.
- 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에 16개의 시도지회와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

50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caca.or.kr/Pages/Main.aspx>

5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arte.or.kr/index.do>

원을 두고 있음⁵².

- 관련 추진사업으로 ‘생활문화공동체’, ‘문화자원봉사’,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2014년 사업종료) 등이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기관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2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재단법인)임⁵³.
- 관련 사업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임.
- 지역의 문화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화이모작 사업’을 실시함.

○ 기타 공공기관

-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등이 있음.

52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53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main/main.aspx>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체감효과가 높은 정책사업 확대 및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완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현황 및 기회요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이 주로 희망하는 문화향유활동인 영화관람,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영화관 사업’, ‘체육 공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식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함.
- 1개 시·군 1개 시설 건립 등과 같이 지자체별로 일관화된 정책 목표를 지양하고 각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특성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반대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인력은 있으나 시설이 미비한 지역도 있음.
 - 특히 농어촌 주민의 문화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매개인력의 육성이 중요함.
 - 한편 원격지 농어촌의 경우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문화버스(택시) 사업 등을 추진함.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 추진 미흡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전국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둬. 반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2013, 2014년 기준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의 농어촌 지원 비율은 약 30%로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2015년 11월 기준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 47개교 가운데 농어촌 학교는 11개교(23.4%)에 불과함.
- 또한 2014년 기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총 31개의 마을 중 농어촌 마을은 5곳으로 전체의 16.1%에 불과함.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문화향유 인프라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에 특성화된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도 읍 소재지나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격지 농어촌 주민은 수혜를 받기 어려움.

- 농어촌의 경우 문화향유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문화향유 정책 추진부처 간 협력체계 부족

- 문화 정책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유사한 성격의 정책 사업을 추진함.

- 하지만 각 단위사업별, 주관기관별로 분절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결과 역시 분절적으로 나타남.

- 유사 사업영역, 또는 사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해당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농어촌 문화향유 개선과제

- 앞서 분석한 각 정책 및 우수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정책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정책내용별 개선과제를 제시함.

1. 기본방향

■ 문화향유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문화경험 기회확대 및 문화향유 욕구 발현

- 문화는 경험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냄. 따라서 기존의 문화향유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활동 및 관련된 소비를 유발하도록 해야 함.
- 즉, 농어촌이 가진 문화향유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농어촌 주민들이 문화향유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원하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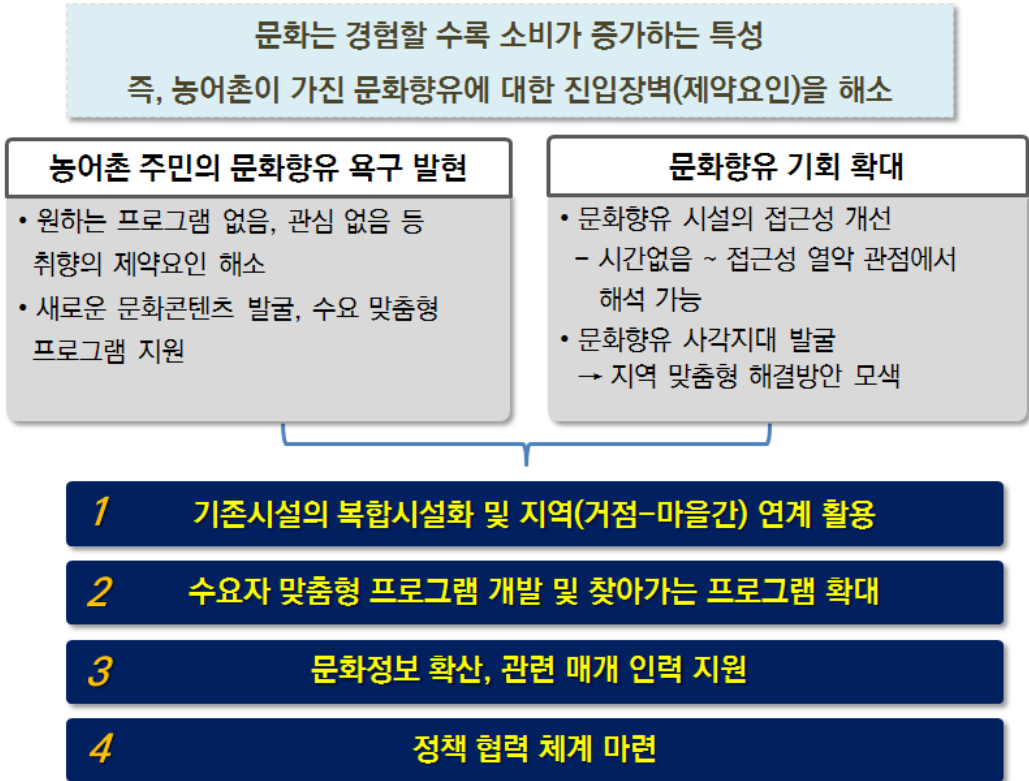
로그램 없음’, 또는 ‘관심 없음’을 나타냄. 이는 농어촌 내의 문화시설 이용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문화 경험이 부족한 데에 기인함.

- 따라서 농어촌 문화향유 콘텐츠 발굴,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문화향유 욕구를 발현하고 경험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어촌 문화향유시설의 취약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방식으로 문화향유 사각지대를 지원해야함.

■ 문화향유 정책 방향

- 농어촌 문화향유 현황을 고려할 때, 크게 네 가지의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프라 측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시설의 복합시설화 및 지역(거점-마을간) 연계 활용’이 필요함.
 - 둘째, 프로그램 및 콘텐츠 측면의 지역주민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셋째, 문화 인프라와 수요자의 실질적인 연결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확산과 매개 인력 지원’이 필요함.
 - 넷째,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간 정책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함.

그림 4-1.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 기본방향



2. 개선과제

2.1. 기존시설의 복합시설화 및 지역연계 활용

1) 개선 필요성

■ 접근성과 수요 대응한 문화향유시설 공급 불충분

- 도시와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단위면적당 개소수가 부족한 수준임.
 - 농어촌의 단위면적 100km² 내의 문화향유시설의 수는 도시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수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함.
 - * 문화기반시설의 수: 도시 17.8개/100km² vs 농어촌 1.1개/100km²
 - * 공공체육시설의 수: 도시 20.7개/100km² vs 농어촌 2.9개/100km²
 - 접근이 불리함에 따라 문화향유기회의 제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촌 내에서도 ‘읍·면 소재지’ 주민에 비해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시설 접근성에 대한 심리적 거리 또한 더 먼 것으로 인식함.
 - 주로 이용하는 문화향유시설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 소재지 주민의 경우 27.7%를 차지한 반면,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은 39.5%를 차지함.
 -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60.3%는 시설까지의 접근이 ‘멀다’고 응답함.

- ‘시간부족’, ‘근처에 시설 없음’이 문화향유의 주요 걸림돌로 제기됨. 특히 시간부족은 근로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농어업인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문화향유시설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소요시간이 길어 문화향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문화향유시설 이용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시간부족(35.6%)’이며, ‘교통 불편(12.7%)’, ‘관련 정보 부족(10.4%)’ 순임.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애로사항으로는 ‘비용(21.5%)’, ‘근처에 시설 없음(18.2%)’, ‘관련 정보 부족(16.7%)’ 순으로 나타남.

■ 문화향유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부족

- 농어촌 지역에 입지한 문화향유시설(‘작은 영화관’, ‘체육센터’ 등)의 이용률이 저조한 사례가 증가함. 또한 시설 관리 인력 부재, 경영 컨설팅(회계, 재무, 마케팅 등)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됨.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함.
- 농어촌 주민, 즉 수요층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함.
 - 시설 조성 이전에 시설의 주 이용층과 프로그램을 고려한 시설 운영 계획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시설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 시설 조성 이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짐.
 - 예컨대 농어촌 지역의 주 수요층이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작은 영화관’의 경우, 국내영화 위주 편성 또는 한글 더빙 지원 등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 가구 및 조손 가구의 비중이 높음. 문화향유 프로그램 기획 시, 농어촌 주민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과제

■ 기존시설에 복합적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활용

-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유휴공간의 리모델링과 기존 시설 내 문화향유 공간(기능) 마련 등 재활용 방식으로 접근함. 또한 다기능 시설을 소규모로 조성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함.
 -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또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유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합시설로 활용함.
- 전담인력 중심의 인력 운영에서 나아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함.
 - 농어촌 주민을 비롯하여 귀농인, 학생 등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여 주민 참여형 시설 운영을 도모함.
-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참여 가능시간 조사, 프로그램 참여 비용 조사 등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제고함.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에 있어 ‘비용’과 ‘시간’이 중요한 고려요인이며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대응, 즉 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민간시설의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활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를 추진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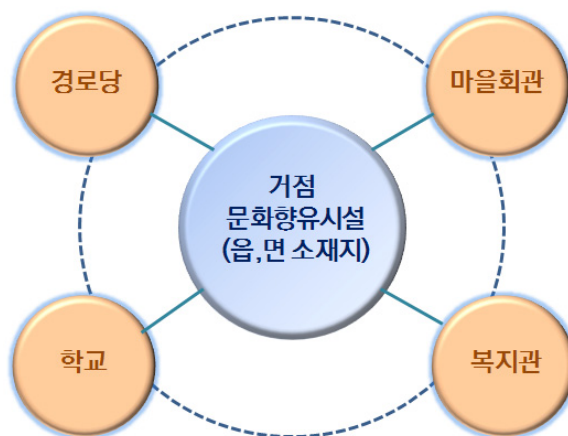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 내 거점 문화향유시설 활용 및 시설운영 안정성 증대

- 문예회관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인접 지자체와 공동 이용을 유도함.
 - 예컨대 협약을 통하여 인접 지자체 주민의 이용료를 감액하고, 이를 수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문화향유시설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 등에 어려움을 겪음. 지역 중심지 내의 거점형 문화시설과 지역 내 마을의 주 이용시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교류를 지원함.
 - 예컨대 거점 시설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것을 마을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칭) 상생나눔 기획사업’을 추진함.

- 문화향유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전문 인력 및 컨설팅을 지원함.

그림 4-2. 농어촌 거점 문화향유시설 네트워크



- 민간위탁 운영방식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상호협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촌 지역 문화시설의 예산운영과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함.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렌터카 업체(카 셰어링), 택시회사 등과 협업을 추진함.
 - 예를 들어, 문화 프로그램 및 공연이 시행되는 일정에 맞추어 농어촌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택시 및 문화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함.

■ 복합문화시설 사례: ‘금산군 다락원’

-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9
- 배경 및 목적: 금산다락원은 문예회관, 보건소, 스포츠센터, 도서관, 영화관 등의 기능을 복합한 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임. 노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4년도에 개관함. 현재 연인원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적 문화 활동 공간임.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실시함
해당 중앙부처와 유관단체의 기금 및 예산지원을 받아 각 시설을 한 단지 내에 입지시켜 공간적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설 및 운영주체를 분리시킴.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공연을 유치함
복지서비스, 청소년 성장, 문화예술, 체육 등의 115개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함. 해마다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연유치를 진행함.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수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⁵⁴.

54 충청투데이 보도자료. 2015.04.22.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98761>

그림 4-3. 복합문화시설 ‘다락원’



금산군 다락원 송년 음악회

금산군 다락원 외부모습

자료: 금산군 다락원 홈페이지 <http://www.daragwon.net/html/darag/>

2.2.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1) 개선 필요성

■ 농어촌 주민의 참여나 선호에 대한 고려 부족

- 각 농어촌 지역의 시설 및 지역주민의 특성(수요)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예술 지원 단체의 활동 내용과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함.
 - 문화예술지원단체가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수요자의 취향이나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발생함.
- 농어촌 주민은 문화향유 시, 접근성 제약을 비롯하여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크며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함.

- 문화향유에 있어 주요 어려움으로 ‘시간부족(35.6%)’, ‘교통 불편(12.7%)’, ‘높은 비용(11.9%)’을 꼽음.
-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이 이루어짐을 반증함.

■ 농어촌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현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상당수는 주로 읍 소재지의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됨. 즉,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다수의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제약은 여전히 상존함. 따라서 농어촌 지역 곳곳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정책 투입에 대한 결정에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나,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는 읍 소재지, 터미널 등의 장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수임. 읍 소재지에서 떨어진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은 적은 편으로 농어촌 내의 문화향유 격차가 발생함.
 - 농어촌 지역의 분산 거주 특성, 대중교통 운행 횟수 부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읍 소재지를 비롯한 농어촌 내 각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과제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 지역주민(수요자)이 원하는, 그리고 향유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문화향유에 있어 경제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요층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예컨대, 조부모+손자에 대해 1+1 이용료 감면, 남성-스포츠, 여성-문화예술 식의 수요자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률을 제고함.
 - 농어촌의 경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제한적임.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처를 확대함.
- 문화향유에 있어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 시간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게릴라성 공연을 확대함.
 -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저녁시간이나 농업활동 참여 외의 시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공연을 지원함.
 - 농어촌 마을행사나 모임시간을 활용하여 문화 공연을 지원함.
- 농어촌 지역의 자원 및 주민의 인구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함.
 - 영화 관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마을 내 학교,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가칭)우리 동네 영화관’ 사업을 추진함.
 -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함.

■ 찾아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
 - 접근성 취약 지역 내의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함.
- 농어촌의 경우 농번기나 수확기에는 주민들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이 있음. 더욱이 대부분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농한기(11월-4월) 기간 동안 예산정산 및 예산편성이 진행됨.
 - 농한기(11월-4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정산 및 배분 스케줄을 조정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이긴 하나, 정책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이월해 농한기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프로그램 만족도를 비롯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함.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사항을 향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함. 이로써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임.

■ 주민주도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
 - 현재 진행 중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농어촌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문화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마을회관, 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 일방적인 관람이나 강습에서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농어촌 주민이 창조한 결과물(작품, 공연 등)을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문화 예술 관광 상품화를 추진함.
- 지역자원(이야기, 소리, 인물, 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주도형) 프로그램을 구상함.
 - 지역차원에서 전시회, 공연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여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고 마을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수익을 창출함.
 - 농어촌 문화교육을 통한 ‘배움’이 ‘나눔’과 ‘공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적·전국적 차원의 문화 축제, 발표회 등을 확대함.

■ 수요자 맞춤형 문화향유 사례(교통수단과 연계): 강릉시 우추리 도배마을 ‘우추리 응원단’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우추리
- 배경 및 목적: 2008년 강원FC 창단 이래 우추리 마을주민들이 서포터즈를 결성함. 평소 지역사회와 교류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마을주민들이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 응원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들 간의 단합심을 강화하고 선수들과의 교류 활동을 진행함. 2012년 강원 FC와 자매결연을 체결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마을 어르신들이 소액주주로 서포터즈 활동 참가
 - 서포터즈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이장 중심으로 소액주주(강원 FC 도민 청약 공모주)로 활동함.

- 원정응원을 겸한 관광활동
원정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회비를 걷어 대형 버스를 구입함. 원정경기 응원 겸 지역관광을 겸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의 관광욕구를 해소함.
- 응원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친밀감 증대
선수들을 동네 마을잔치에 초청하거나 격려회식을 진행하면서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함. 응원팀(강원 FC)역시 홈경기에 우주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에스코트단으로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진행함⁵⁵.

그림 4-4. 강릉시 도배마을 ‘우추리 응원단’



자료: 중앙일보 스포츠 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12390943>
강원신문 보도자료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0723>

2.3. 문화정보 확산 및 관련 매개인력 지원

1) 개선 필요성

■ 정보부족으로 인해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문화향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주요 제약요인으로 34.8%가 ‘정보부족’을 꼽음.
 -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관련정보부족(18.3%)’이 제기됨.
- 농어촌 지역 순회공연 등의 프로그램 정보(일정, 신청 시기, 신청방법 등)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함.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순회공연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모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
 - 농어촌 주민의 문화누리 카드(구, 바우처) 이용률이 1.1%로 매우 낮음. 이는 문화누리 카드 가맹처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도 있으나, 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 부족도 원인 중 하나임.

■ 농어촌 지역의 높은 고령층 비율로 인한 능동적 문화향유 제약

- 농어촌 고령인구의 경우 소셜(Social) 및 온라인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며 문화향유 경험 역시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도시와 차별화된 정보전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경우 문화향유 욕구는 있으나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참여 제약이 존재함.
 -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고령층의 활동을 독려해 줄 사람, 즉 매개인력 육성이 필요함.

2) 개선 과제

■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 마련 및 정보접근성 강화

-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농어업 소식 정보채널 공유를 강화함.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등을 통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이 많으므로 입소문, 전단지, 우편물 등을 활용함.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요 활동거점에 문화향유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농업신문이나 관련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홍보함.
 - 농어촌에 지원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60.7%이고 여성은 82.6%로 나타남. ‘여성’에 비해 ‘남성’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남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마을에서 지원하거나 신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읍·면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강구함.

- 문화향유 관련 정보는 주로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온라인 홈페이지 공고물을 통해 공유됨. 농어촌 지역의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지역리더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정보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귀촌자, 예술인 등 매개인력을 육성·조직

- 능동적 문화 참여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귀촌자, 예술인 등을 매개인력으로 육성함.
 - 농어촌의 낮은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율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 부족도 원인 중 하나임. 따라서 문화향유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농어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원인력을 육성함.
 - 매개인력의 역할은 문화향유 수요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큐레이션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콘텐츠 수집 및 전달 등임.
- 동행 및 함께 할 인력이 필요한 문화향유활동의 경우 인력지원(과건)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화택시(버스) 등 이동수단과 연계하여 추진함. ‘(가칭) 문화동행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층의 문화향유 참여의 주요 제약요인(함께 할 사람 없음, 취약한 접근성)을 해소함.
-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레지던스형 문화콘텐츠 개발을 확대함.
 - 유희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들이 농어촌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및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 농어촌 문화향유 매개인력 사례 : ‘구례군 군민극단’

- 배경 및 목적: 귀농·귀촌자와 원주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극단으로 2012년 창립공연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제6차 정기공연을 실시함. 농어촌 문화소의 계층에게 연극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연극을 기획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연함으로써 자생적 문화공동체를 구축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형태를 도입함
극단이름부터 작품선정, 연습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모든 극단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함. 또한 군민 누구나 연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군민이 배우이고 군민이 관객인 형태임
주민이 연극 무대에 서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친지, 이웃사촌 모두 연극관람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지속적인 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함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꾸준한 소통을 진행함. 공연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기금으로 조성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함⁵⁶.

그림 4-5. 구례군 ‘군민극단’



구례군 ‘군민극단’ 공연연습



구례군 ‘군민극단’ 공연

자료: 오마이 뉴스 보도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0286

56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2012.02.11일자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6494

2.4. 정책 협력체계 마련

1) 개선 필요성

■ 문화향유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협력적 정책 추진 부족

- 문화는 지역여건 및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행복생활권,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함. 하지만 각 부처 간 연계, 협력을 위한 매개 기반이 취약하고 일부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적 사업 운영이 어려움.
 - 문화향유 정책추진에 있어 각 부처 간(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책 간 연계, 협력,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 또한 사업내용의 중복성 및 사업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각 정책 영역 간 정보공유 부족, 정책사업 단위별 추진주체 다기화에 따른 분절, 단절이 이루어짐.

■ 정보공유 부족 및 연계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 미약

- 문화 관련 다양한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등)이 각 정책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내용의 중복, 사업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 내 소관부서와 산하기관들 간 칸막이를 넘어 지역의 문화정책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단체, 지역주민 간 역할분담 및 소통기구가 없음.
 - 문화향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요구됨.

- 농어촌 지역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 추진체계가 부족함.
 -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지원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공립 문화시설,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네트워크 및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과제

■ 타 부문 간 연계협력 시스템 개발

- 문화향유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농어촌 교통복지 시스템 등 통합적 전달체계를 강구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입체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지역문화,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사업 등 지역에서 행해지는 중앙정부 문화시책 전반에 대한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삶의 질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각 부문별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함.
 - 연계 시책 발굴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내에 ‘(가칭) 농어촌 문화향유 정책협력기구’를 설치하여 협력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 합동협의회, TF, 포럼 등의 형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연계 시책에 대한 공동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한 실행을 검

토할 수 있음. ‘(가칭) 모자이크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별 기능에 따른 사업을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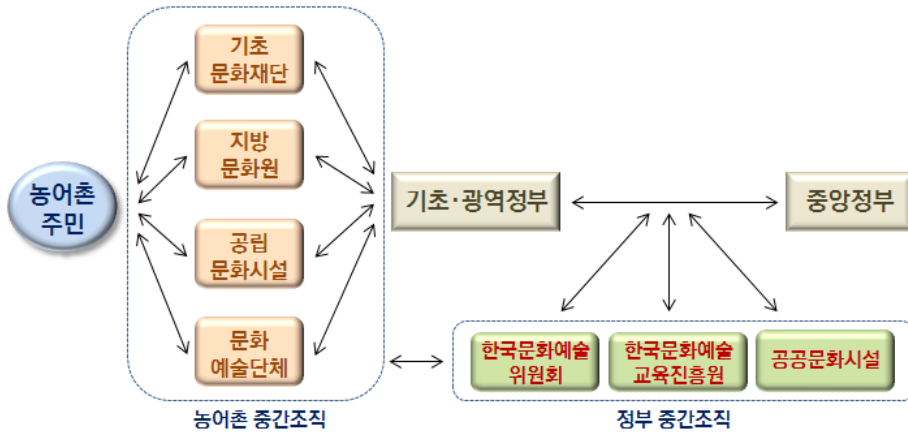
- 한편 농어촌 문화향유를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시스템 마련에 앞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실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정부 시책사업의 사업 배경이나 목적에서 지역별 격차 심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농어촌 문화 소외 지역 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긴 하나 실제 농어촌 주민의 체감 수준은 미흡함.

■ 지역문화 거버넌스 형성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앙의 재정 지원 아래 지역의 자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함.
 - 구심점이 되는 주체와 주요 목표를 설정함. 예컨대, 농어촌 주민-농어촌 중간조직-정부중간조직-정부 간의 관계설정을 통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함.
 -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중심형 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농어촌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
- 지역의 문화 주체 간 원활한 소통과 연계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거버넌스를 형성함. 특히 문화향유 수요자(농어촌 주민) 접점에서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농어촌 중간조직(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공립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함.
 - 정부와 농어촌 주민 간의 소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중간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중간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함.

- 중앙정부의 기초·광역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간섭 최소화를 통해 지역 문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함.
- 정부 중간조직 간의 정책 시스템 통일 및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구조를 확립함.

그림 4-6. 농어촌 문화향유 거버넌스



■ 정책협력 사례 : ‘칠곡군 보람할매연극단’

• 배경 및 목적: 2013년에 설립한 연극단으로서, 초창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해 문맹이었던 할머니들에게 한글교육을 지원함. 이후 한글 학습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연극 공연을 기획하면서 연극단을 구성함. 현재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 연극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 할머니들의 행복감을 제고하고 있음.

- 의도한 정책협력은 아니었으나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능동적 문화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사례로서 정책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함.
- 문해 교육 담당자가 연극을 기획하였기에, 매개인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이기도 함.

• 주요내용 및 성공요인

-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활발한 공연활동을 수행함
2015년까지 총 30여 회 공연을 실시함. 또한 2014년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연극부분 대상 수상, 2015 실버문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함.
- 찾아가는 공연봉사 및 지역사회 기부활동을 전개함
소외지역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연 봉사활동을 수행함. 또한 공연수익을 지역인재 육성기금인 호이장학회에 기증하여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함⁵⁷.

그림 4-7. 칠곡군 ‘보람할매연극단’



자료: 뉴스 GB 보도자료 http://news.gb.go.kr/main/php/search_print_page.php?idx=14415&img

57 대구일보 2015.10.06일자 기사 http://www.idaegu.com/?c=1&sort=d_regis&order-by=desc&uid=325965

3. 요약 및 제언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3차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농어촌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향후 연차별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목적은 **첫째, 농어촌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및 진단, 둘째, 농어촌 문화향유 지원정책의 추진내용 검토, 셋째,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임.**
- 농어촌의 문화향유 현황 분석 및 진단,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문화향유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도시 주민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역의 단위면적당 문화시설의 개수가 도시에 비해 훨씬 낮음.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향유시설의 접근이 어렵다고 체감하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임.
 - 즉, **농어촌 주민의 경우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need)는 있으나 접근성 등 기회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 지원 정책 가운데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필요가 나타남. 또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향유 정책 추진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발현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4가지 개선과제를 도출함.
- **첫째, 기존시설을 복합시설화 하고 지역(거점-마을간) 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함.**
 - 기존의 민간·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다기능 복합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함.
 - 거점지역과 마을간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설운영 및 전문 인력 및 컨설팅을 지원함.
- **둘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함.**
 - 농어촌 주민(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대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셋째, 문화정보 확산 및 관련 매개인력을 지원함.**
 -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으로 농어업 소식 정보채널 및 오프라인 방식(입소문, 전단지, 우편물)을 활용함.
 - 귀촌자, 예술인 등의 매개인력을 육성하거나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넷째, 정책 협력체계를 마련함.**
 - 문화향유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입체적 지원 등 타 부문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개발함.
 - 지역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향유 시책을 시행함.

■ 제언

- 농어촌 주민을 비롯한 상대적 문화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원하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지리적·경제적·시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함.**
- 2015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각론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각 정책 개선과제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방안 및 사업화 방안을 도출함.
- 연차별 연구(안)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2016년에는 ‘**문화향유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를 수행함. 심층 분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함.
 - 2017년에는 ‘**연계협력 사업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함. 주요 정책영역 및 내용을 분석하여 연계협력형 신규 사업을 발굴함.

참고 문헌

- Edward Burnett Tylor(1871), 『Primitive Culture』
- Hillery, G. H.(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 Joyfit 뉴스(2013.1.4.일자),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증대에 1000억 배정”
- 경기문화재단(201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안내”
- 관계부처합동(2005),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 김홍규·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농촌진흥청(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
-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영화문화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3),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사업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 -2014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증장기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여가 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향유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4), 『전국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4.6.30일자),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시대”
- 박남환(2013), 『경북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3-44.

- 양혜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사례집」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전략 수립」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4),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사업 공모안내서”
- 한상우(2014), 「정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남도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 행정자치부(201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자료」
-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자료」
- 광주드림(2013.10.1일자), “주민 스스로 만든 공동체, 아만토”
- 교차로 닷컴 뉴스(2012.7.16일자), “작은 도서관 개수는 전국최고, 운영은 천태만상”
- 남해신문(2014.11.21일자), “남해군 ‘작은 영화관’ 건립, 딜레마”
- 다정다감 정책브리핑(2013.7.4일자), “규모는 작아도 제 역할 다하는 작은 도서관”
- 대구일보(2015.10.6일자), “한글 배워 연극까지, 할매들의 인생 2막”
- 동아뉴스(2015.2.4일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접수, 올해부터 신청자 모두에게 발급, 사용처·혜택은?”
- 동아일보(2014.10.16일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10개월 성과와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5. 5. 11일자),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 시대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 서산시대(2015.4.3일자), “정작 쓸 곳 없는 문화누리카드, 그림의 떡?”
- 세종의소리(2014.10.6일자), “가나자와시 ‘시민 예술촌’은 어떨까요”
- 아시아 뉴스통신(2015.8.18일자), “강화군 작은 영화관 군민 절반이 다녀가”
- 아시아경제(2015.9.11일자), “[2015 국감] ‘문화가 있는 날’ 동참 조기퇴근 기업은 6곳 뿐”
- 오마이뉴스(2012.2.11일자), “전국에 자랑합니다, 구례에 군민극단 생겼어요”
- 완주전주신문(2015.8.21일자), “상관 기찻길 작은 도서관, 전북 대표 도서관 자리매김”
- 전북도민일보(2014.1.21일자), “작은 영화관 운영의 묘 찾아야”
- 전자신문(2014.8.24일자),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40.5%, 도서·영화에 편중”
- 지식보름(2014.12.11일자), “지속가능한 대안을 교육한다, 우파파브리”

충청투데이(2015.4.22일자), “금산다락원 건강·문화·복지요람 자리매김”

쿠키뉴스(2015.7.8일자), “학교문화예술교육 질적 향상 위해 만족도 조사 의무화 추진”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http://www.artstour.or.kr/home/main.aspx>)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kams.or.kr/main/main.aspx>)

창호초등학교홈페이지(<http://changho-p.gne.go.kr/index.jsp?SCODE=S0000000495&mnu=M00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rte.or.kr/index.d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caca.or.kr/Pages/Main.aspx>)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ccf.or.kr:8080/dspv1User/UserMain.do>)

부 록

2015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 다음은 귀하의 각 문화향유활동 참여정도와 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향유활동	활동 종류
문화예술 관람활동	영화, 뮤지컬, 연극, 미술, 문학,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등의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글쓰기, 춤/무용, 전통예술 등에 참여하는 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경기장 방문을 통해 축구경기, 야구경기, 농구경기 등의 각종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게이트볼, 족구, 탁구, 등산, 헬스 등의 구기운동, 체력단련운동, 레저스포츠 등 참여 활동
관광활동	여행, 답사, 역사유적지탐방, 축제방문 등의 활동

1. 귀하가 아래의 각 문화향유활동에 현재 참여하시는 횟수와 앞으로 희망하는 참여횟수를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문화향유활동	현재 참여횟수	향후 희망하는 참여횟수
문화예술 관람활동	년 기준 _____ 회	년 기준 _____ 회
문화예술 참여활동	년 기준 _____ 회	년 기준 _____ 회
스포츠 관람활동	년 기준 _____ 회	년 기준 _____ 회
스포츠 참여활동	월 기준 _____ 회	월 기준 _____ 회
관광활동	년 기준 _____ 회	년 기준 _____ 회

2. 각 문화향유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합니까?

문화향유활동	삶에 미치는 효과				
	매우 부정적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문화예술 관람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관람활동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관광활동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관광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관광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관광활동을 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완전히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 경험’ 또는 ‘향후 관광활동 의사’가 있으신 경우] 귀하께서 관광활동을 하시면서, 또는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관광경험이나 참여 의향이 없을 경우 체크 없이 **6번으로 이동**]

- ① 높은 비용
- ② 시간 부족
- ③ 교통 불편(접근성이 안 좋음)
- ④ 함께할 사람 없음
- ⑤ 관련 정보부족
- ⑥ 어려움 없음
- ⑦ 기타(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TV시청 제외) 스포츠 관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7. 귀하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스포츠 관람활동을 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완전히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관람 경험’ 또는 ‘향후 관람 의사’가 있으신 경우] 귀하께서 스포츠 관람을 하시면서, 또는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관람경험이나 관람의향이 없을 경우 체크 없이 **9번으로 이동**]

- ① 높은 비용
- ② 시간 부족
- ③ 스포츠 관람 경기 및 프로그램부족
- ④ 스포츠 관람시설 까지 교통 불편
- ⑤ 함께할 사람 없음
- ⑥ 관련 정보부족

12. 9번 에서 언급한 문화향유시설은 주로 누구랑 함께 가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혼자서
- ② 지인 혹은 친구와
- ③ 가족과
- ④ 동호회 회원들과
- ⑤ 기타(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9번 에서 언급한 문화향유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 되는 평균 비용은?

(1회 이용기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만원 이내
- 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 ③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 ④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⑤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⑥ 15만원 이상
- ⑦ 소요 되는 비용 없음(무료)

14.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아래의 각 시설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종류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문화예술 관람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참여시설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관람시설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참여시설	①	②	③	④	⑤
관광활동 시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의 문화향유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높은 비용
- ② 시간부족
- ③ 시설 부족
- ④ 교통 불편(접근성이 안 좋음)
- ⑤ 시설의 불편
- ⑥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부족
- ⑦ 관련 정보부족
- ⑧ 함께할 사람 없음
- ⑨ 어려움 없음
- ⑩ 기타(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화향유 프로그램 (아래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포함함)

- ①신바람 놀이문화사업 ②토요문화학교 ③작은 도서관 ④작은영화관
 ⑤문화이모작 사업 ⑥예술꽃 씨앗학교 ⑦예술체험 원정대 ⑧실버문화대축제
 ⑨꿈다락 토요문화학교 ⑩움직이는 예술정거장 ⑪문화가 있는 날 ⑫기타

16. 귀하는 위와 같은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모른다'의 경우 20번으로 이동]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①	②	③

17. 귀하는 위와 같은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경험횟수기입: 년 _____ 회) ② 없다 [20번으로 이동]

18.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가 주로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시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번호)_____번 (기타인 경우 직접기입 _____)

19. 위와 같은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이다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완전히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